다시, 교회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로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다시, 사귐으로 하나되는 교회로
다시, 제자삼고 선교하는 교회로

물댄동산

The Well-Watered Garden

Vol.99 | 2022. 09. 가을호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발 행 인	박창운	**편집위원**	최무진, 이영숙, 김승훈 이주하, 이경호, 김원진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동산동)
지도목사	임병철			**발 행 일**	2022. 9. 25
부 장	양홍철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윤	**홈페이지**	www.firstch.org
부 부 장	허군열	**발 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이 메 일**	fch_pub@naver.com
총 무	이상원				
회 계	안지현	**전 화**	(053)253-2615～7		
편 집 장	양홍철	**팩 스**	(053)253-2618		

물댄동산

통권 제99호

The Well-Watered Garden

소통의 장

여는 글
04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시나요?
박창운 위임목사

교육부
06 여름성경학교에 임한 하나님 나라
김새봄 성도(김하원 엄마)
08 2022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이경애 권사(유아부 부장)
10 대구제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김예영 교육전도사
12 초등 1·3부 연합 여름성경학교
이하나 집사(초등3부 교사)
14 순수한 마음으로 빛나는 아이들
여진만 성도(초등2부 교사)
16 믿음 성장의 지름길... 초등4부 여름성경학교~
박은유 초등4부
18 중등부 수련회 소감문
이민형 중등부 총무
20 예그리나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며
신진섭 고등부 회장
23 2022년 청년1부 여름수련회 소감문
윤지현 청년1부 회장
25 안식 安息
곽지예 청년2부 회장
28 하나님~ 대단하세요!
문승욱 집사(청장년부 회장)
31 교사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종희 집사(초등4부 교사)

목양부
34 하말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
정은주 집사
35 힐순
조정남 집사

새가족부
36 새가족 소개
37 감격으로 먹는 제일교회 국수
김남희 성도
39 나의 신앙을 '아라'케 하시는 하나님!
최지은 성도

해외선교 소식
41 단기선교 단상
이석진 선교사(M국)

소식 나눔
42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삶과 신앙

평신도 신앙강좌
46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3]
장규현 목사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49 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성준 목사

신앙글
51 믿음의 대(代) 잇기
이옥자 권사
55 겨자씨 믿음과 고추씨 소망
오은섭 성도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57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홍보출판부

5분 독서코너
59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연간주제 릴레이
63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3]
김병년 목사

제일 논단
67 교회는 '환대' 공동체인가
이주하 협동장로

크리스천 문화

건전한 영화 소개
70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 [2]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수필
72 청라언덕 위에서
임혜순 은퇴권사

공연 · 전시
74 우리지역 문화 · 공연 활동소개

건강 칼럼
75 건강과 질병, 그리고 건강검진
우극현 은퇴장로

세대 간 소통
78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원진 청년

80 제5회 제일가족 한마음 운동회 광고

물댄동산 제99호 표지(앞, 뒤)의 이미지제공은 청년부 품공동체 곽지예 청년이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시나요?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도 제자를 남겨두고 승천하실 때 아주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고 분명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약속의 말씀이 공허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특히 어려운 일이 몰려와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라고 되내인적은 없으신지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야반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의 과도한 욕심과 교묘한 성격이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떨어진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피신을 갑니다. 희망이라고 있을 것이 없는 야반도주의 도상을 그리는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11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는 길에 광야에서 유숙하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절의 묘사 자체는 극심한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냥에 능한 에서의 추격이 무서워 불을 피우지도 못하고 바위틈으로 기어 들어가 숨을 죽이며 지세야 하는, 야곱에게는 혹독한 밤이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아찔한 신세를 탄하며 울지도 못합니다. 야밤의 울음소리는 더 멀리 퍼지는 법, 유능한 추적자의 추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늘의 저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2-15절)." 절망과 외로움에 찌든 그에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15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엔 "힌네" "아노키"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문장의 강조 용법을 살려 표현하자면 "보라, 내가, 내가 말이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보아라. 야곱아, 내가, 내가 말이야 너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야곱과 함께 하며 반드시 그를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절)."

하나님은 이렇듯 늘 야곱과 함께 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에게는 늘 이렇듯 함께 합니다. 이제껏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자신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욕망과 계획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살아가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입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며, 더 이상은 자신의 생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의 사건은 분명히 말씀해줍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분명한 자각에서 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꿈을 꾼 연후, 하나님을 만난 연후 야곱의 행위가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18-19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정에 필요한, 자신의 모든 것이랄 수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나를 지켜주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샬롬! | 골든동산

여름성경학교에 임한 하나님 나라

– 영아부[1] 여름성경학교 후기 –

김새봄 성도(김하원 엄마)

남편과 아이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깊게 잠이 든 아이의 머리칼을 한번 쓰다듬고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종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펜을 들어 7월에 참가했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았습니다. '이것도 좋았지,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며 그날의 기쁨과 감사했던 마음의 기억들을 최대한 선명히 회상해 보았습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는 7월 2일 토요일 아침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아직 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이를 깨워 부랴부랴 아침밥을 먹이고 기저귀와 이런저런 간식을 챙겼습니다. 그날 성경학교에는 타지에 사는 저의 오랜 친구와 그 친구의 딸도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 안내해 줘야겠다는 마음에 그날 아침이 더욱이 분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약속한 시각에 친구와 본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차로 1시간을 내리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부모인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새 힘을 주세요.'

친구와 아이들 손을 잡고 2층에 내리는 순간 저와 제 친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아부 예배실 입구가 여름휴가를 연상시키듯 너무나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맞아주시던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티셔츠와 이름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성경학교 시작 전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친절한 환영을 받으니 아침에 성경학교를 오느라 분주했던 마음 덩어리가 마치 시원한 바닷물에 싹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 아름답게 장식된 굽이진 바다와 알록달록 풍선들, 마치 항해를 나서는 선원들처럼 한 팀이 되어 빨간 줄무늬 티셔츠를 맞춰 입으신 영아부 선생님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찾아 막 항해를 시작한 배에 올라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에 앉자 곧이어 시작을 알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여름성경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앞에 서신 율동 선생님들께서 밝은 표정과 미리 익혀 오신 안무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저마다의 작은 몸짓으로 여름성경학교 찬양에 맞추어 작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영아부 전도사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전심으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주제로 하신 말씀을 듣

1) 영아부(36개월 미만의 영아) 오전 11:30 | 지도교역자: 김은지 전도사 부장: 최은현 권사

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도록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찾았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주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제 관련 공 찾아 넣기, 하나님 나라 벽돌 길을 만들기 등등……. 참여 인원이 많아 다소 산만할 수 있었던 활동은 두 팀으로 나눠 장소를 분리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활동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해주신 선생님들의 배려가 곳곳에 묻어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푸짐한 선물도 한 아름 안겨주신 우리 제일교회 영아부. "오늘 멀어도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성경학교가 끝나고 친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에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일 영아부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찾았다~ 하나님 나라!'.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영아부 전도사님과 부장 권사님, 선생님 한분 한분을 통해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이 후기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골덴동상

2022년 유아부[1]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이경애 권사(유아부 부장)

"밝은 햇빛 쨍쨍쨍 빛나는 오늘 우리 함께 달려가 보자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사랑 가득한 성경학교~♬"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주제 찬양으로 여름성경학교 문을 열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 첫째 날 여는 예배는 서성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주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유와 희망을 얻게 되었고, 성령강림으로 새로워진 초대교회 역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전쟁과 화염,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 속에 피조물들에 교회는 복음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여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임무이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과 새로움을 깨닫고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길 소망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여는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반별로 성경학습을 하였다. 각 반 선생님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이들이 각자 알록달록 교회를 꾸미고 접어서 작은 교회를 세웠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코너 학습으로는 코딩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 코딩 놀이를 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대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바닥에 그려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도착지점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큰 소리로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 외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코딩 놀이를 재미있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탄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코너 학습으로 〈새로워져요 무드 등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하고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워져요. 이제 우리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해요. 그 마음을 담아 무드 등을 만들 거예요. 우리의 새

1) 유아부(5세 이하 유아) 오전 11:30 | 지도교역자: 김현진 전도사 부장: 이경애 권사

로워진 모습을 반짝반짝 빛내서 세상을 밝힐 거예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무드 등을 예쁘게 꾸미고 박자에 맞춰 반짝반짝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였다.

신나는 찬양으로 둘째 날이 시작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외치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교회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신체활동으로 〈나눠줘요,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사랑이 더해져서 사랑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임을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성경학교는 교회에서만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성경학교가 되었다. 2주간 가족 미션을 통하여 성경학교의 주제와 찬양을 미리 배우고, 여름성경학교 여는 예배에 상영할 부모님의 영상편지도 촬영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영상편지를 통해 "ㅇㅇ아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성경학교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 넌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아이들은 화면으로 만나는 부모님의 얼굴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였다. 또한 부서에서 준비한 초대장을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누어주시는 수고도 아끼지 않으셨다.

2022년 유아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부모님들께서는 "주제에 맞는 설교와 찬양 활동들도 아이가 이해하기 더 쉬웠습니다.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기도문을 주셔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찬송과 율동을 아주 재미있게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해주셨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도 많았지만 2022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골덴공상

대구제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유치부[1] 여름성경학교를 되돌아보며...

김예영 교육전도사

지난 5월부터 대구제일교회 유치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된 제게 두려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한없이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느껴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이유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훌륭한 교사들을 예비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제게 대구제일교회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다가와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려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께서 도움을 주셨던 이유는 단지 제가 도움을 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선생님들의 태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역시 아이들을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유치부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지고 봉사하시는 임원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각 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

1) 유치부(미취학 아동) 오전 9:30 | 지도교역자: 김예영 전도사 부장: 김삼숙 권사

는 마음 하나로 모여 오랜 기간 동안 섬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통해 채워주고 계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대구제일교회의 다른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부서의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대구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 골덴동상

초등 1·3부[1] 연합 여름성경학교

– 3일 간의 기록 –

이하나 집사(초등3부 교사)

안녕하세요! 벌써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주춤한 시점에서 2022년 초등1,3부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돌아보며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글로 추억을 박제하여 봅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여느 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비록 1박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시대 진입 이후 처음으로 캠프식으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이 출석하는 초등 1부(9:30예배)와 초등 3부(11:30예배)의 연합으로 진행된 행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 행사였습니다. 연합 여름성경학교 준비는 늦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부장님들의 진두지휘 하에 행사 장소와 일정을 계획하고 업무를 분담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물놀이 장소 섭외, 간식 준비 등 세밀한 영역까지 전도사님과 각 선생님들의 긴밀한 협조로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기획되었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연합 여름성경학교 시작일입니다. 금요일이라 마음의 기본 값이 긍정 모드로 세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 진행될 연합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반차를 내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시험공부 하듯이 각자 맡은 성경 학습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무리 준비를 하며 초등 3부실에서 아이들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을 갓 넘긴 시각, 하나둘 아이들이 초등3부실로 입장하여 여름성경학교 단체 티를 입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는 예배와 함께 연합 여름성경학교 주제곡과 찬양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복음 라이더스'였는데요. '복음' 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 라이더스'로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복음이 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별 미션을 진행하며 평소에는 데면데면했던 교회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백미 ~ 캠프파이어가 빠질 수 없죠. 1일차 밤은 찬양, 기도와 함께 캠프파이어가 진행되었습니다. '복음 라이더스' 주제에 걸맞게 성경책을 가슴에 품은 복음 라이더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캠프파이어 장으로 입장하여 장작에 불씨를 지펴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를 잘 녹여낸 재치 있는 기획이 돋보이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듯, 연합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어진 작은 복음의 불씨가 점점 자라나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2일차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물놀이가 빠질

1) 초등1부(초등학교 1～3학년) 오전 9:30 | 지도교역자: 김다운 전도사 부장: 이상녕 안수집사
초등3부(초등학교 1～3학년) 오전 11:30 | 지도교역자: 박종성 전도사 부장: 장지중 안수집사

수 없죠. 오전 코너 활동으로 성경으로 무장하고, 오후에는 청도에서 바비큐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었던 탓에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도착해서 선생님들이 정성껏 미리 준비한 바비큐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난 뒤에는 버스에서의 고생을 모두 잊고 신나게 물놀이에 돌입하였습니다.

7월 24일 주일, 3일차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별 활동에 대한 시상과 함께 퀴즈와 닫는 예배로 연합 여름성경학교 3일차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성경학교 주제곡과 안무도 외울 정도이고 같은 조 친구들과 정도 담뿍 들었는데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내년 여름성경학교를 기약하며 2022년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연중행사 중 성탄절과 더불어 여름성경학교가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무더운 여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시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 가운데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초등 1부와 3부가 연합하여 더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골덴동상

순수한 마음으로 빛나는 아이들

– 초등2부[1]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

여진만 성도(초등2부 교사)

길었던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외부 장소에서 밤을 보냈던 성경학교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그리고 제한이 많았던 성경학교를 뒤로하고 이번 성경학교는 마치 난생처음 경험해 보는 듯한 설렘에 모든 선생님들이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던 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거리 두기로 예민했던 지난 여름성경학교와는 달리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회의하고, 각자 담당 파트 선생님들끼리 나눠 준비하고, 선발대 배정과 식자재 준비까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주함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재확산으로 선생님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던지 큰 사건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도 구애받지 않는 열정을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모든 초등 2부 선생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배움을 줬던 대상은 비단 선생님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조 담당 선생으로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순수한 마음은 앞으로 제가 청년을 지나 장년이 돼서도 제 신앙생활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가 끝나고 집에 가서 놀 생각으로 가득 찬 아이들에게 준비물 안내가 귀에 들어올 리 없겠지만 시끄러운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몇 분간 준비물 안내만 했음에도 그날 하루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2박 3일 동안 붙어 다니면서 챙겨주고 또 어떻게 공과공부를 해야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성경학교 기억까지 쥐어짜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공과공부는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빨리 끝내고 가능한 만큼 자유 시간을 줘서 아이들을 최대한 즐겁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학교 당일 첫 번째 공과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주일 날 준비물 안내할 때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해진 공과 순서를 잘 따르고 활동하고 나눔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진지했습니다. 지난 주일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제일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가 그날은 제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공과공부에 집중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공과공부를 길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집중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길어진다 싶었는지 바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 초등2부(초등학교 4～6학년) 오전 9:30 | 지도교역자: 엄진용 전도사 부장: 김근섭 안수집사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공과공부 몇 분 줄여주는 것에 기뻐하고, 실없는 농담 한마디에 바로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했습니다. 반찬투정, 친구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하루 종일 가지 않고 물놀이 한 번으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거침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골리앗이 쓴 투구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다윗이 던진 돌이 만약 빗나갔으면 어떻게 됐는지 등등 주제에 살짝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말씀 본문을 다시 한 번 곱씹을 수 있는 디테일한 질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티끌 없이 맑았습니다. 주일날 교회학교 안 가고 늦잠 자고 싶었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던 한 아이의 모습은 저의 30년 모태신앙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다윗의 기름부음, 성장, 회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 믿음의 승리를 얻었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순수한 마음, 큰 죄를 범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순수한 마음, 언약궤 앞에서 춤출 수 있었던 순수한 마음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제쳐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었을까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이들의 시끄럽고 정신없는 모습 그 너머 순수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 블렌등상

믿음 성장의 지름길...
초등4부[1] 여름성경학교~

박은유 초등4부

내일이면 초등4부 여름성경학교(7. 16.~17.) 날이다.

엄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4부(영어성경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도하셨다. 내일이 여름성경학교라니... 너무 기대되고, 설렘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곧 잠을 주셨다.

아! 아침이다!!!

엄마 차를 타고 아침 일찍 교회로 출발하였다. 벌써 친구들이 와 있다고 (카카오)톡이 와서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하여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을 담아 개회예배를 드렸다.

> **제목 : 아브라함 따라가기,**
> **말씀 : 창세기 12장 7~8절, 설교 : 서성준 목사님**
>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Faith)으로 따르기(Follow)를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 주심(Turn).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Hold)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
>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한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한 결과 많은 지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예배 후... 교회 버스를 타고 청도에 있는 『봉식이 놀이터』로 출발하였다. 선생님들께서는 봉식이 놀이터에 가면 수영장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물놀이할 생각을 하니 마냥 즐거웠다.

도착도착~ 그리고 우와! 우와! 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섭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맑은 하늘과 화창한 날씨~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제일 먼저 수영장을 확인하니, 다시 한번 우와!

규모도 크고 친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늘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 보였다.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풍덩풍덩~ 친구들과 튜브도 타고 물총놀이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며 지켜봐 주셨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배가 고팠다. 물놀이 후 맛난 바비큐와 수박으로 점심을 먹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겁게 놀게 하시고 맛난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점심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젠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1) 초등4부(초등학교 4~6학년) 오전 11:30 | 지도교역자: 부재 부장: 최은미 권사

신나게 놀 때가 제일 재미있다. 교회로 돌아가기 전 기념사진 찰칵~

교회로 돌아와 영화『부루스 올마이티』를 보고, 자장면으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첫날은 끝~

둘째 날. 예배 후 친구들과 다양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통해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시간 전도사님[2]께서도 함께하고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다. 그렇지만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서 뜻깊은 여름성경학교가 된 듯하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성경학교가 기대된다. | 골덴공상

2) 7월 현재 초등4부 전도사님은 공석상태임.(편집부)

중등부[1] 수련회 소감문

이민형 중등부 총무

안녕하십니까? 중등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총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대륜중학교 3학년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7월 24,25일 1박 2일간 하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가지 못했던 수련회라 그런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등부 학생들이 기대한 시간이었고, 그만큼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대구 제일 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는 "슈브"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지내며 활동하고 느낀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수련회 첫날, 서성준 목사님의 예배와 함께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어서 참여 학생이 적을 거라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였고, 경주로 출발하기 전부터 설레는 맘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초등부와 다르게 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경주 교원 드림센터였는데, 도착한 이후 소회의실에 모여 자신의 반과 선생님을 확인 후, 수련회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주 도착 후, 윤예성 선생님의 레크리에이션은 기대로 가득 찬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더욱 신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저희를 하나의 팀이 되어, 다른 반과 경쟁을 하게 하지만,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련회 주제 말씀은 황원섭 목사님을 만나 〈〈룻기 4 : 1 ~ 6〉〉 말씀으로 "슈브"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앉아 2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에 지루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님을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 그 순간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지금의 삶이 '앵앵거리는 날파리 보다도 작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재미있고 쉽게 주제를 전달하셨지만, 그러한 말씀 속에서 충분히 깊은 울림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원섭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후에 저희들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치킨, 피자와 같은 야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후, 먹는 야식 시간 역시 평소보다도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7월 25일 수련회 두 번째 날 황원섭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와 서성준 목사님의 닫는 예배를 드리고 경주월드로 출발하였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

1) 중등부(중학생) 오전 9:30 | 지도교역자: 부재 부장: 장순기 안수집사

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굴만 알고 지내던 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동안, 그전의 수련회보다 더욱 느낀 게 많았습니다. 황원섭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잠깐의 기도, 성경책 읽음이 힘들지 몰라도 다 저에게 득이 되는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학업, 대인관계와 같이 지금 중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나 이민형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공부와 친구와의 관계가 단연코 쉬울 수만은 없겠지만 지금 한순간의 땀과 노력이 다음날, 한 달 후, 몇 년 후의 저를 활짝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우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 중등부 화이팅!! | 울렌동상

신진섭
고등부 회장

모태신앙인의 깨달음

– 고등부[1] 수련회를 마치며 –

저희 예그리나 고등부는 7월 22일에서 24일, 주님의 평안과 말씀 안에서 여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과 저희 고등부 곁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는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수련회에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다른 수련회보다 특별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가 중단된 적이 있었고, 설령 그전에 수련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부 학생들끼리 서로 시간을 가질 시간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기엔 너무 적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수련회에선 교회에서 자고 서로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 서로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모두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조를 나누어, 각 팀의 성취도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 식사 메뉴를 고르거나, 저녁 식사의 설거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빙상장에 가서 간식을 먹을지 말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은,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에 좀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먼저 이 수련회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 드리고,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수련회라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컸고, 공동체 훈련과 OT 시간에 평소 주일에는 서로 하지 못했던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한우 불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등부를 대표한 일부 학생들이 설거지를 담당하여 권사님, 집사님들께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진심어린 기도로 다 함께 불태웠습니다. 평소 금요 철야에 거리나 시간문제로 참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수련회로 인해 참여하였을 때, 작지만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당이 불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제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게 된 저 스스로도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만 된다면 금요 철야에 참여할 의향도 확실하게 됐습니다. 기

1) 고등부(고등학생) 오전 9:30 | 지도교역자: 이정이 목사 부장: 배상인 안수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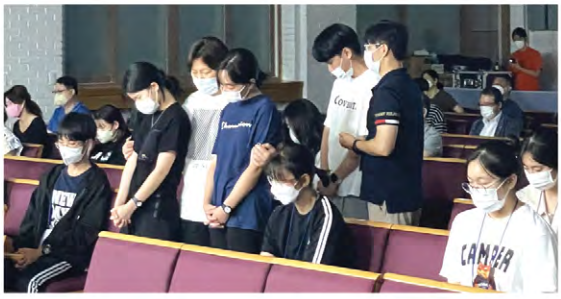
도회 이후, 저희는 야식을 먹으며 서로 좀 더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는 거나, 서로의 관심사나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등 사적인 질문을 나누어 고등부끼리 좀 더 돈독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했던 일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도 하며 서로의 신앙심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고,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믿음을 잃어갈 때 어떻게 다잡아 갔는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하루 동안 다들 얼굴을 보며 지내니 말문이 트이긴 하더군요.

둘째 날에는 일어나서 다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으며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느 고급 호텔의 조식이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도 즐겁고, 기분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순서로는 목사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얼떨결에 조가 두 조로 재편성되는 바람에 달란트 사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긴 했으나, 더 많아진 조원 수 덕분에 수련회에 참여하는 재미는 두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둘째 날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은 박효빈 디자이너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앞에서 들은 간증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올해 들었던 간증 중에서 저희 고등부에 딱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간증이었습니다. 전에 타투 아티스트를 하며 지냈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바르지 못하고 약간 불량한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박효빈 디자이너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진실하고 진솔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박효빈 디자이너님의 간증에 저의 맘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시고, 전혀 쓸모없고 실패작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동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믿음을 늦게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에 강하게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의 아들로 커왔고, 주일마다 크게 아프거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떠오르기보단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효빈 디자이너의 간증처럼,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찾고, 찾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공감이 갔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써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주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활용하실 거란 간증을 마음에 품은 채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다 같이 먹음에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쳤지만, 동시에 곧 있으면 마무리될 수련회에 대해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틀째의 마지막으론, 서로가 서로에게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고, 개인의 고민이나 궁금증들을 적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내용의 롤링 페이퍼를 받았겠지만 자신에게 밝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봐서 좋았다, 고등부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고맙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지내라는 작지만 큰 말들이 제게 너무 큰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항상 고등부에

서 얼굴 볼 수 있기를,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응원할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들을 남겼는데,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에 뜻깊고, 그 어느 보화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저를 비롯한 몇 명이 찬양을 고등부원 모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커스 워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소개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나를 사용하시는 주를 찬양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이 위로가 되었기에 모두에게 감동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했었습니다.

단순히 놀러 왔다는 개념의 수련회보다는, 많은 가르침들을 얻고,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고등부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다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수련회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하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불덴등상



청년의 때엔 미쳐라~

– 청년1부[1]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

윤지현
청년1부 회장

유독 뜨거웠던 이번 여름, 품 공동체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밀양 소명수련원'에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공동체를 향한 열정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해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해 개회 예배를 드린 후, 각 조별로 맡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 함께 모여 나눠 먹으며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뻥튀기로 글자 만들기, 성경 안 틀리고 빨리 읽기, 색판 뒤집기, 퍼즐 맞추기 등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조원들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즐거운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게임을 하며 슬슬 출출해지려던 때, 마침 이문희 장로님과 방현숙 권사님께서 맛있는 찰옥수수를 사들고 방문해 주셔서 꿀맛 같은 간식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엔 바쁘신 일정에도 밀양 소명수련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박창운 담임목사님의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에피소드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무언가에 미치지 않은 것은 미친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공동체에 미치라는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마음속 깊이 인상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 옆의 동역자들과 우리 품 공동체 모두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게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재밌는 특강이 끝난 후엔 여름 수련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물놀이를 했습니다. 서성준 목사님과 함께한 물놀이는 그 어느 게임이나 레크레이션보다도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다 함께 시원하게 몸을 식히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즐거운 물놀이 시간이었습니다.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는데, 함께 와주신 이금환 부장집사님과 김기중 집사님께서 뜨거운 더위 속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물놀이가 끝나고 가장 배고플 때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거하게 먹고, 수련회의 마지막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열정을 다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서성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나의 열정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있었는지 되돌아보며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집회 때는 청년2부 이재환 부장집사님과 청년2부 임원단 언니, 오빠들도 함께해서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양손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잔뜩 사들고 와주셔서 너도 나도 하나씩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금환 부장집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신 불꽃놀이 덕분에 수련회의 마지막 밤을 더욱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1) 청년1부(18-26세 청년) 오후 2:00 | 지도교역자: 서성준 목사 부장: 이금환 안수집사

강으로 우르르 나가 더위도 잊은 채 폭죽을 터뜨리며 조원들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불꽃놀이를 했던 그때가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잠자리에 들것 같았지만, 다 함께 강당에 모여서는 공기놀이, 보드게임, 랜덤게임을 하면서 새벽이 지나도록 놀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특별히 새가족을 졸업한 지체나, 새가족 교육 중인 지체들이 많이 왔는데, 구면인 친구도 초면인 친구도 모두 함께 밤이 새도록 놀다 보니 어느새 서로 친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서로 어색해서 존댓말을 쓰던 친구도 이제는 교회에서 만나면 안녕! 하이! 하면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마지막 밤 새벽 끝까지 알차게 보낸 저희는 다음날 다크서클을 주욱 늘어뜨리고서 폐회 예배까지 무사히 잘 마친 후 오는 버스에서 모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열정' 가득한 청년1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대구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P.S. 청년1부 수련회에 직접 걸음 해주신 박창운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불덴등상

안식 安息

– 청년2부[1] 여름수련회 후기 –

곽지혜
청년2부 회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 2:1-3)'

여름 수련회 그 이후,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울창한 숲, 선조들이 거닐었던 고즈넉하고 조용한 계곡, 짙은 해무가 깔려 하늘과 물의 경계가 허물어진 바다. 자연에서 시작된 우리가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1~13일 청년 2부에서 경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안식'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허무한 안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깨닫고 누리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정들로 꾸려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수련회에는 다양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꺼내 보자면, 수련회 마지막 날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바다를 향했는데요. 이럴 수가! 안개가 매우 짙어 수평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예정 일출 시간을 훌쩍 넘었는데도 해가 뜨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기대하며 왔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주어지는 상황 또한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난생처음 본 우리 곁에 짙게 깔린 해무가 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무로 인해 해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듯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요"

해무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앉아서, 누워서 각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품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뒷모습을 사진에 고이 담았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이라 당연히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때의 잔상은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이 외에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청년2부(27-34세 청년(미혼)) 오후 2:00 | 지도교역자: 서성준 목사 부장: 이재환 안수집사

"삶의 자리에서 안식 중이신가요"

수련회를 다녀온 몇몇 지체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29기 이미나 "이보다 더 평안할 수 없다!" 안식을 주제로 한 2박 3일 수련회를 양껏 즐긴 한 줄 감상입니다. 이상하게 올여름 수련회만큼은 품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오매불망 8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속한 모임인데도 어색하지 않고, 편하고 반갑고 정겹고 즐거웠어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일정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큰 수고와 헌신으로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임원들께 진짜 진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제 모교회에서도 3년 만에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어요~ 대구제일교회를 잘 못 오겠지만, 품 공동체가 그리울 때면 폭삭~~안기러 달려오겠어용. 모두들 평안한 쉼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셔용♥

34기 배윤정 담임목사님과 서성준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좋았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안식할 수 있어서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곰곰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바라면서도 세상에서 주는 불안들에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이 말하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하는 수련회였습니다.

35기 조형주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수련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회 가니까 정말로 힐링이 되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29기 홍지수 이번 수련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품 공동체 지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33기 홍준표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식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 깊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간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네요~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9기 김재민 지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낸 이후 잔잔한 듯 진한 여운으로 지내고 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과 자연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였습니다ㅠㅠ 참 안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로 2022년 남은 반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꺅!

30기 신유빈 지금까지 안식이라고 하면 무위, 탈출의 의미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안식의 근원지인 하나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한 안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몇 년 만에 함께 떠나 누릴 수 있었던 수련회라 참 감사했습니다.

35기 최혜지 2부에 올라와서 처음 경험한 수련회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 기대에 맞게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과 차량 운행을 해준 지체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낸 품 공동체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었어요~♥

32기 박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기 정소원 마음의 안식이라는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가하였는데 '말씀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자' 라고 알게 된 순간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퇴근 후 수련회 참석이라 고민도 많이 하고 유혹도 많았지만 참석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은 물론, 공동체 생활이 많이 그리웠는데 조원들과 나눔 하며 이것 또한 안식이구나 깨달았어요~

35기 김경현 항상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라는 세상 속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인 안식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쉬는 줄만 알았던 안식=쉼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 관계로부터 단절로부터 소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32기 김성수 아담과 하와, 둘 관계의 시작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안식이 시작되고 찾아온다는 목사님 말씀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응용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어딜 가나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고요.'

맺으며

우리는 안식을 몸과 마음의 휴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잠시 쉬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다릅니다. 우리네 삶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흉내 내는 육체적, 정신적 쉼의 차이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은혜의 열쇠를 기꺼이 선물로 건네받은 우리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면서 앞으로 삶에서의 안식이 더욱 기대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수련회를 참석하여 함께 누려주신 분들,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기도로 동역해 주신 분들, 수련회 준비부터 진행 과정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품 공동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식을 누리자! | 골덴동상

하나님~ 대단하세요!

청장년부[1]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 주일에는 나 찾지 말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먼저지.

문승욱 집사(청장년부 회장)

몇 해 전 은퇴 장로님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장로님께서 청년들을 향해 덕담과 충고를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120년 영남 모교회의 성장과 헌신에 감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나이가 되니 과연 그때 그 장로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위해 쫓아다니면, 내 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내 시간은? 이런 의문 말입니다.

청장년부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공동체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구성원을 수련회 참여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지체들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청장년부는 코로나를 겪은 이후 모이는 데 있어서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잘 모이는 공동체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8월 14일(주일)부터 15일(월, 광복절)까지 1박 2일간 팔공산 군위 쪽 산기슭에 있는 뮤지엄스테이 펜션에서 가족 중심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48명과 그 자녀 29명, 지도를 위해 함께한 교역자 4명, 모두 81명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펜션에 모였습니다. 주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행18:1-4)'.

여는 기도 모임을 마친 후 무려 11개의 숯 화로로 삼겹살 파티를 시작하였고 청장년부 공동체 모두는 감사함으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대화가 저녁의 주요 메뉴였습니다. 그만큼 오랜만에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쉽게 어울려 놀이를 시작했고 지체들은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

1) 청장년부(35-54세 청장년) 오후 1:20 | 지도교역자: 서성준 목사 부장: 신동숙 권사

니다. 마치 여름밤 함께 캠핑을 즐기는 분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서성준 목사님의 주제 특강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참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 부부가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부부로 참여하였으므로 그야말로 의미 있게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부부 생활을 진솔하게 나누셨고 그때마다 지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격한 공감과 반성을 번갈아 이어가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은? 이정이 목사님(고등부)과 김다운 전도사님(초등1부), 김예영 전도사님(유치부)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부모들이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를 교역자들에게 맡긴 청장년부 지체들은 더욱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도회의 시간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녀 기도가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였고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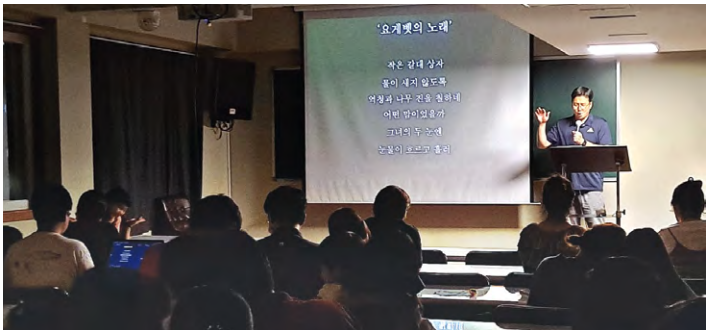
늦은 밤 몇몇 지체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다시 나와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하거나, 세미나실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다과를 나누며 지금까지 혼자 하였던 고민과 생각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도 하며 밤을 지내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화가 고팠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그리웠습니다.

다음날 일정인 유득순 집사(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의 영화로 나누는 주제 특강과 계곡에서 즐긴 물놀이까지… 청장년부의 여름수련회는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또 각자에게 알맞은 마음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해 풍성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이라 좋았습니다. 수련회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군위 부계면에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청장년부의 임원으로서 수련회를 계획하며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사

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부담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러나 수련회 이후에는 '모이자'에 진력하는 방향보다는 '각자가 현장에서 든든히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도 각자는 저력 있는 신앙인으로, 교회는 개인과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앞으로의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일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개인의 삶과 가족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면 참 좋겠습니다.

청장년부 수련회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물질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정에 없던 수련회 계획을 받아주시고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결정해 주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여러분들께 청장년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알잘딱깔센 수련회를 준비해준 청장년부 임원 동역자들 (조영란, 박지희, 양현석, 유득순)에게 쌍따봉을 날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묘한 일기와 인원과 재정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마련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끄덕끄덕). | 알렌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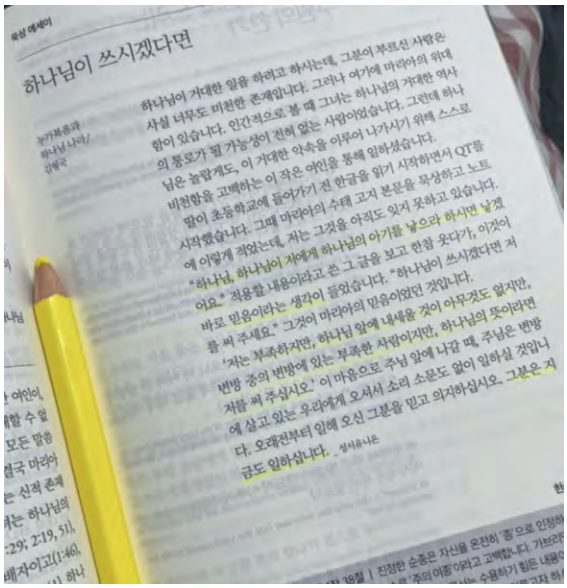
교사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종희 집사(초등4부 교사)

현재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를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왠지 피상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번 교사 수련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고 나의 문제점이 매일 큐티 생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2022년 6월 10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1박 2일의 교사 수련회가 '말씀을 맛보라'라는 주제와 함께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렸다. 중등부 교사 9명, 초등 4부 교사 5명, 찬양 인도 특별 게스트인 배상인 집사님과 함께 담당 전도사님(중등부 박해진 전도사님)의 고뇌 어린 장소 선정으로 우리 모두 평온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료 선생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60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16세부터 교사의 길에 들어서서 50년간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지만 교회 밖 장소에서 이렇게 알차고 기분 좋은 교사 수련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 경주 교원드림센터에 도착했을 때 작고 아담한 세미나실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미리 선발대로 가신 초등4부 임원들과 중등부 부감 선생님께서 세미나실의 분위기를 한껏 부티 나게 고조시켜 놓으셨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포트, 다양한 차들, 달콤한 무공해 방울토마토, 맛있는 과자들도 부티 나는 분위기에 한몫하였다. 내가 80년대 대학원 수업 시간에 프랑스의 유아교육에 대해 발표할 때 프랑스의 빵 바게트와 발효 탄산차 콤부차를 마시면서 프랑스 문화에 젖어 있던 때가 떠올랐다.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분



위기 좋은 세미나실에 모여서 먼저 전도사님의 사회로 교사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배상인 집사님의 멋진 감동의 기타 반주와 함께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졌다. 특히 찬양 중에서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나의 맘을 위로해 주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사들은 자유롭게 4개의 팀을 이루어서 우선 각자의 별명 소개를 하였는데 팀별로 일어서서 소개할 때 배정수 선생님의 별명-배실이, 배삼룡-이 우리 모두 배꼽을 쥐고 큰 소리로 통쾌히 웃게 만들었다. 통쾌한 웃음을 뒤로하고 전도사님의 '고대/중세 기독교 묵상 방법', 'PRESS 방법에 따른 큐티하기', 'Q.T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Q.T의 3(4)단계', 'Q.T를 결심하지만 지속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등에 대한 강론이 PPT 자료,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1박 2일 동안 이루어졌다. 특히 CBS의 '새롭게 하소서'(https://www.youtube.

com/watch?v=lePrGrV_Hc8)에서 무속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기까지 체험 영상 자료를 통해 그 무속인의 신앙과 영성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모태신앙인 나의 신앙과 체험보다 훨씬 더 깊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수 없었고,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기 같은 신앙인임이 좀 질투도 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영상을 본 후 질의응답에서 전도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그 무속인의 신앙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한 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로부터 제시받은 답을 통해 믿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에게 큰 공감이 되었다. 사실 현재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를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왠지 피상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번 교사 수련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고 나의 문제점이 매일 큐티 생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녁 11시까지 순식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밤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승합차 타고 밤 드라이브를 시켜주신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나

는 "저요!"라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10명 정도의 교사들이 승합차를 타고 동해 쪽으로 밤 드라이브를 떠났다. 밤이라 서로가 서툴러서 이리저리 갔다가 겨우 도착한 곳은 감포 문무대왕릉이었다. 깜깜한 밤에 파도 소리만 쏴—아 쏴——아 철썩였다.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군데군데 가족들, 연인들이 텐트와 불을 켜두고 있었고 우리처럼 밤바다로 놀러 온 어떤 그룹들은 우리를 반기듯 폭죽을 간간이 쏘다가 급기야는 30발 정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아마 대구제일교회 교사 수련회를 환영하듯이 말이다. 밤 1시가 넘어 봉고를 타고 숙소를 오던 참에 "ㅎ ㅎ 김밥 못 먹었네"하는 소리가 들리자 "김밥은 라면이 딱인데!"라고 누군가 소리쳤다. 아무리 늦은 밤이지만 이 소리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은가? 곧 문을 닫으려는 24시 편의점에 들어가 5분 정도를 소요하면 자동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 유명한 한강 라면을 하나씩 들고 김밥과 새벽 밤공기와 함께 모두 후루룩후루룩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즉석 은박지 도시락 라면! 아침이면 모두 퉁퉁 부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숙소로 돌아와 조금의 휴식이라도 친구로 벗삼아 잠을 청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주변

을 산책할 때 넓고 넓은 파란 잔디와 각종 새소리가 주님 주신 자연의 신비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뒤로하고 전도사님의 강론이 이루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은혜의 시간이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깊이 묵상하지 않고 빨리 대충 숙제처럼 먼저 급하게 읽고 TV, 컴퓨터, 전화 등의 방해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Q.T를 결심하지만 지속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실을 정리한 후 서로의 인사와 끝맺음의 박수를 끝으로 봉고를 타고 경주 주상절리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활하고 거대한 탁 트인 자연경관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만끽할 수 있음에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었다. 전도사님께서는 장소 선정부터 답사, 수련회 총기획, 강론, 운전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상절리 야외 소파에서 일광욕과 함께 15분 정도 잠을 주무시고 나니 개운하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으며, 따스하고 정성 가득한 교사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God's Love. | 물댄동산

사랑의 공동체 「하말순」 이야기

하말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
- 순장 : 최은미 권사

정은주 집사

샬롬~~♡ 순모임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순은 이름처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순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 앞에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순입니다. 때론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순 모임을 통해 나눔과 도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최은미 순장님, 연약하지만 섬기려 노력하는 정은주 집사, 모든 일에 긍정적이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이세진 집사, 웃음이 끊이질 않는 분위기 메이커 정희영 집사 네 분이 모여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었음에도 줌(Zoom, 영상회의용 소프트웨어)으로, SNS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누며 지내 온 시간들...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나눌 수 있다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나눔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참을 느꼈습니다.

순 모임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순 모임입니다. 와 보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calling(부름, 소명)이 느껴지신다면 순 모임으로 지체 없이 달려오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장하며 은혜 안에서 삶의 감사함과 자유,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 골덴등상

사랑합니다 ♡
축복합니다 ♡

점점 주께 가까이...
[힐순] 이야기

– 순장 : 최은현 권사

조정남 집사

결혼생활 21년 차, 신앙생활 21년 차인 조정남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남편을 따라 영혼 없이 교회에 몸만 갔다 왔다 하던 어느 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도 스스로 많이 던지면서 도화지만 펼쳐놓고 아무런 그림도 못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힐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순은 최은현 순장님과 곽명희, 박현주, 조연미, 배정은, 박선애 순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큐티를 나누고 중보기도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찾아오는 마음의 든든함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순을 통하여서 기도의 습관도 생기고 묵상하는 습관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의지나 원동력이 없었던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인연의 기회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힐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모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떨 때 더 기뻐하실지,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들이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이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믿는 믿음은 위험할 수도 잃어버리기도 쉽다는 것을 순모임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시작은 붙어있기만 해도 좋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게 도와준 것도 우리 힐순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여전히 좋기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로 혹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워지고 싶으시다면 주위의 가까운, 혹은 아시는 분들과의 순모임을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더욱 즐거워지실 겁니다. 불덴등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전정숙 _ 2교구 9구역

니부아 _ 1교구 24구역

카타베 _ 1교구 24구역

조이 _ 1교구 24구역

최정연 _ 1교구 14구역

김수경 _ 1교구 17구역

박수진 _ 2교구 23구역

정태영 이다현 _ 3교구 25구역

이윤화 _ 3교구 25구역

민경미 _ 3교구 25구역

이은영 이희경 _ 2교구 22구역

한승화 류평강 _ 1교구 33구역

김영광 김새봄 _ 3교구 1구역

김원석 정창희 _ 2교구 36구역

최상무 _ 2교구 36구역

김도근 이진아 _ 4교구 11구역

권영보 _ 4교구 15구역

김춘화 _ 2교구 3구역

김태균 _ 4교구 4구역

김학만 오영희 _ 4교구 4구역

김미경 _ 4교구 15구역

박규리 _ 3교구 4구역

강선영 _ 2교구 15구역

감격으로 먹는 제일교회 국수

김남희 성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 :16 ~ 18

저는 15년 전쯤부터 제일교회 동산의 뜰을 밟곤 했던 이름 없는 방문객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거나 외지에서 친구가 오면 대구의 가볼 만한 곳 1순위로 제일교회 뒤뜰에 있는 선교사 주택들과 묘지 그리고 3.1운동 계단의 역사와 이상화 고택과 약령 시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대구를 소개해왔습니다. 이곳을 대구의 가볼 만한 곳으로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첫째로 대구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교회 뒤뜰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손님이나 친구라면 더욱 이곳으로 안내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참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일 교회의 앞뜰과 뒤뜰을 밟곤 했는데, 6~7년 전쯤부터는 출장이나 집안 사정으로 주일예배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제일교회 오후 예배를 가끔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저를 인도하신 때였기에 영육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었으며 인간적으로는 초인적인 힘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겨우 버틸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일교회로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는데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중, 저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묻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는 듯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강력한 느낌 속으로 들어갔으며 생각지도 않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렀을 때처럼 그렇게..... 등록한 교인이 아닌 방문객으로 교회의 한구석에 앉은 채 아무도 저의 눈물의 사정을 눈치 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로 등록할 마음을 주셨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저를 인도하시어 올해 초 제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초기화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받았기에 저는 예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잠시 가졌던 실존주의 사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며 신을 증명하려 했던 나의 이성을 깨트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으며, 때때로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게도 하시며 실제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갈 수 있었으며 세상 가치관이 아닌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익혔습니다.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가족 구원과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적 사명 가운데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앞뜰과 뒤뜰을 밟는 방문객이 아닌 제일교회의 일원이 된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되니 주일마다 점심으로 먹는 국수조차 저에게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다가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저만의 감격으로 먹는 국수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정을 순모임에서 나눴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저를 소개하는 글까지 쓰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새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자라는 순'모임에서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순장님과 새가족부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이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새롭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일교회 앞뜰과 뒤뜰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게 되는 날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사들의 삶,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 새마음으로 더욱 분명하게 선전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합니다. 불덴등상

최지은 성도

나의 신앙을 '아라'[1]게 하시는 하나님!

Ascending Faith

매주일 아침,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고 계시는 새가족 식구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회를 합니다.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으로 바이올린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very sunday's morning, I participate in the New family department Worship with barnabas, Pastor and laymans, with a graceful heart.

We are receiving new grace every week and feel refreshed while I worship with those who devote for new family. I want to share what I received from the God how I am sharing what I have received through Violin.

새가족부에서의 찬양과 기도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In New family department worship's praise and prayer, I felt God's Grace, which I cannot even speak with my limited expression. I received God's peace is touching my heart.

저는 늘 새벽에 교회에 도착하여 갈릴리 찬양대를 시작으로 새가족부의 경건회 참석 후 시온 찬양대를 섬기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I arrive at church 6:30 am every Sunday. I participate in Galilee choir, and after I attend the devotional for the new family. After then, I serve for Zion choir.

매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짧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명으로 섬김을 하는 새가족부 식구들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새로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거 같아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Every week, New family worship's members are serving new church members with God's words, prayer, and praise. They always serves with humbleness in the heart. We always think of how we can share this profound grace with each other and new church members.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 하나인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는 것은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든 악신이 떠나간 것 같이 흑암으로 덮인 이 세상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이올린으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Nowadays, I am performing as a viloin player. As David did, I would like to change the worldly lives shadowed by Satan. To do this as God's messenger, I want to use violin.

1) 히브리어 **עלה** '아라' = 높이 오르다, 들어 올리다

지난 7월 23일에는 '아리아리 아츠 문화예술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어 새가족부 식구들과 함께 한 콘서트는 뭔가 모를 기쁨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족한 제가 짧은 기간에 뭔가 하는 것이 미흡했지만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이경옥 권사님과 새가족부에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금현주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ast July 23th, I founded "Ariari Arts," organization for culture and arts. While I was prepare for its initial concert with new family members, I could feel mysterious joy and God presence, Immanuel(God is with us). I know that my abilities and strength are too limited to work on all of these in a short period time. However, thanks to Elder Kyung ok lee and Hyunju Kum, who have led me with prayer and God's words, I could succssesfully complete all these works.

또한 얼마 전 결성한 아리아리 아츠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연주로 핫한 연주자들과 함께 그의 인도해 주시는 고귀한 길을 사탄이 장악한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로 장악하고 하고 싶어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Also, I made Ariari Arts, which is introducing hot musicians. By doing so, I want to walk God's way together, and lead the change for Christ's culture.

저는 현재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섬기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하며 미래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뜻을 펼치고자 학업에도 매진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말씀과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Nowadays, I am working in an Elementary School and performing as a Violin Player as well. I am also studying Cultural Policy to practice and execute those policies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of these roles and tasks are God's calling given in the midst of His providence and plan. Probably God want me to spread Gospel among artists who are suffering from many difficulties.

한편 새가족부에서는 늘 새로운 말씀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의 힘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섭리와 무한한 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태연 목사님의 권고로 경건회에 참석하게 되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시작함으로 제가 이때껏 홀로 찬양한 것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쓰는 이 글은 이영숙 권사님의 권유로 쓰게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으로 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Meanwhile, in the New faily department, I want to testify how God works and deliver His infinite Grace by relying on God's powerful message and the power of praise, which originates from the deepest part of my heart.

In addition, According to Pastor Tae yeon, Lee's suggestion, I began to share my praise through violin with other church members. I am writing this testimony according to Elder Yung suk, Lee's encouragement. I want to fulfill what God ordered me to do with a humble heart.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제 삶 속에서 평안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엇보다 값진 경건회 시간은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I don't know what God's plan for me is exactly. But I want to receive a genuine blessing, which enables me to maintain peace in my heart, through participating in devotional. I want to grow up by relying on God's words and the power of prayer. | 불덴등상

단기선교 단상

이석진 선교사(M국)

매년 이맘때면 한국 교회가 잘 훈련된 청년 단기선교팀을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현지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2018년 여름, J교회의 청년들이 처음으로 저희 사역지로 단기선교를 왔다. 첫날 사역을 마치고 나눔을 갖는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교사님, 짧은 시간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준비해온 공연을 하고, 쌀과 옷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5박 6일이란 짧은 시간,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서 선교지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공연하고, 봉사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 대신 그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 한 꼭지를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을 즈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농활을 온 적이 있었다. 우리 마을은 너희들이 오늘 본 원주민 마을과 같은 아주 깊은 산골 마을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란다. 대학생들이 낮에는 논과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돕고 저녁이 되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그때 우리 마을에 들어온 대학생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외부 세계로 눈을 뜨게 해준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되었단다. 처음 들어보는 대학생이라는 호칭이 내 귀에 너무나 근사하게 들렸고, 그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어린 소년의 눈에 너무나 멋져 보였단다. 그 순간 그 소년의 마음에 '나도 저런 멋진 대학생이 되어야겠다.' 라는 소망의 씨앗 하나가 심겨졌단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고, 결국 그는 그 마을 최초의 대학생이 되었단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깜풍(시골, 오지라는 말레이어)에서 복음으로 꿈을 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다. 어쩌면 나의 이 이야기가 너의 질문에 답이 될 것 같구나.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오늘 여기에 온 너희와의 만남 때문에 이 깜풍 너머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코리아 드림을 말하고, 소망의 씨앗을 품는 친구들이 나올 것을 믿어보자꾸나."

그날 이후 둘째 날부터 원주민 마을 아이들을 대하는 청년들의 눈빛과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사역의 현장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다. 5박 6일의 비전트렙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과 비전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그 청년들은 지금도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하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단기선교,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 한 사람의 다녀감을 통해 제2, 제3의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소년 소녀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물댄동산

2022. 06. 27. ~ 07. 01. 2022년 2기 바이블 아카데미(삶을 바꾼 로마서)

2022. 07. 03. 이스라엘 신원식 선교사 특강

2022. 07. 17. 장삼일, 은소망 선교사 선교 보고회

2022. 07. 31. OM 한인국제선교사역 김일권 선교사 선교 보고회

2022. 08. 07. 몽골 정홍재, 박선주 선교사 선교 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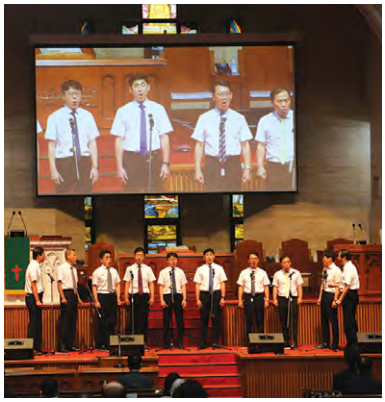
2022. 08. 28. 군학원선교부, 성명여중 상담선교 파송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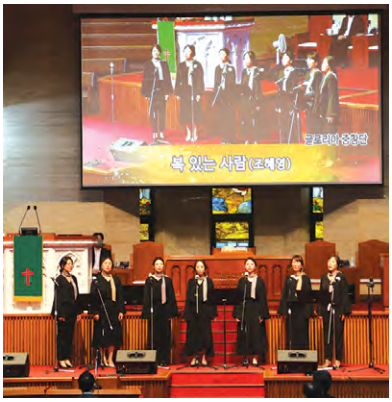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2. 08. 21. 해외선교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양인모 목사)

2022. 09. 04. 해외선교세미나, 러시아 선교(허성군 목사)

2022. 07. 31. 중창단과 함께하는 쉼과 안식이 있는 찬양





2022. 07. 31. 김하원 첫출석(부-김영광 성도, 모-김새봄 성도)

2022. 08. 27. 부활동산 벌초

벌초 전

벌초 후

2022. 09. 04.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2022. 09. 12. 포항 태풍피해 복구 봉사 (청년부)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좌 [3]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장규현 목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강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드는 의문은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인간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의미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의 3대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강조한 배경에는 중세의 엄격한 수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묵상과 기도, 정기적인 금식과 절제된 금욕적인 생활이 수도사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에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을 쏟았지만,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자기 한계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실존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몸부림에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경험한 이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은혜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강력한 외침은 중세의 암흑기를 전복하였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개신교는 언제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벅찬 감동은 조금씩 사라져갔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되었고,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은혜는 모호한 개념이 되어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불편할 일이 있을 때, '은혜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충 하라는 의미로 '은혜로 합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은혜'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교회 내의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값비싼 은혜

성경에서도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은혜로 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값없이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자신의 성취로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직시했던 신학자가 본회퍼입니다. 그는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를 대비하여 은혜의 소중함을 역설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팔듯이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은혜가 강조되면 인간의 책임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은혜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방적인 것이고, 언제나 인간의 노력에 앞서는 우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에게 율법을 통해 그녀에게 사형(돌을 던져 죽이는 벌)을 내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녀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이유와 조건 없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이렇게 경험되는 은혜는 너무나 감격적이며,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인간의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받은 자로서의 책임성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책임성도 커지는 법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에 빚진 자로서 목숨을 던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소명받은 존재로서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규정이 달라집니다. 전적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은 단순한 의무나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서의 신앙적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민합니다. '나의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바라기는 모든 제일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불렌동산

서성준 목사

알쏭달쏭 성경 Q&A

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인식

한국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술과 담배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술과 담배는 절제해야 하고, 좀 더 과격하게는 죄의 문제로 간주하는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한국기독교의 입장은 초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의 술 문화를 보니, 만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형태를 바라보며, 술에 대한 절제와 금주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이와 같은 흐름이 오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된 관점이다.

술에 대한 성경의 권면

성경에서 술을 완전히 금하라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은 없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술에 대한 권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성경이 경계하는 술에 대한 입장은 거의 모두 술 취함에 대한 경고와 경계에 있다. 술에 취하여 사는 자는 가난하고 망할 것이라는 권면(잠 21:17, 23:21), 술에 취함으로 다툼과 싸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권면(잠 23:29-35), 술에 취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권면(잠 26:9, 31:5)이 잠언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된다. 또한 신약에서는 주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권면(딤전 3:3, 8, 딛 1:7, 2:3)이 언급된다. 또한 일반 성도에게도 술에 취하지 말라는 권면(롬 13:13, 갈 5:21)이 동일하게 가르친다. 심지어 술 취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도 권면(고전 5:11)하고, 술 취함에 대한 모습은 음란, 정욕,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와 동일한 영역에 올려놓아 경고하는 내용(벧전 4:3)도 담고 있다.

성경이 술 취함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금할 것을 권면하는 바는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 실수와 범죄가 술 취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에서는 다툼과 실수 등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술이 오고 가는 주점과 클럽, 포차가 즐비한 곳에서는 쉽게 다툼과 싸움의 장면, 고성

이 오고 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술에 강하다고 할지라도 술에 취할 때, 우리의 이성과 정신, 감정은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기 쉽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거룩한 성품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마치 구원에서 탈락된 것처럼,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은 우리가 바꿔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음식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마 15:11, 고전 8:8-13)

술을 대하는 성도의 삶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선교사님들의 전통에 의해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한 부분도 있으나, 성경 역시 술에 대해 부정적인 권면을 주로 이루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익하다고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성경에서 권면하는 측면은 '술 취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술을 취하지 않고, 매너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면 술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을 즐기거나 술 취하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경계할 것을 권면한다. 술에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말과 행위가 통제 되지 않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을 대하는 성도의 삶은 우상의 제물이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논쟁 앞에,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고백과 연결하여 생각할 부분도 있다. 술을 마시고 취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됨으로 믿음이 약한 동역자,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술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맺으며

술에 취하지 않고 가볍게 한 잔? 정도의 술만을 마실 수 있는 절제력과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술의 특징은 한 잔에서 끝나기보다 취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 또한 술에 취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권면하고 있듯이 더 유익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충만하기를 힘쓰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유익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가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다. 불덴등상

믿음의 대(代) 잇기

이제 중년의 나이, 그토록 갈망하던 믿음의 가정
세우기에 성공하였고,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옥자 권사

초등 6학년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골교회 특성상 특별강사를 초빙해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잔치는 온 동네 아이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여 동네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도로변까지 나가 도시에서 오시는 강사님을 기다리게 했지요. 시간 시간 전해 듣는 말씀 속에 빠져들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갈 것 같은 믿음과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약속 기도를 드렸지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8남매 중 다섯째인 저는 동네 이장이신 완고하시기로 소문난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정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고, 밤마다 오빠들은 붓글씨와 한자를 공부하고, 저는 먹을 갈며 지겹도록 정직과 형제우애를 강요하시는 아버지의 훈시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대 문중에 종갓집인 우리 집은 옛날 서당을 운영했고, 할아버지는 침술을 익혀 허준처럼 돈을 받지 않고 환자들을 돌봐주는 청빈을 자랑으로 여기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셋과 언니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절기 때나 혹은 가끔씩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 그때 배운 찬송을 지금도 흥얼거리는데,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터라 나는 중학생이 되어도 아니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6학년 성경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지요.

중학교 2학년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담임 교역자는 영남신학교에 재학 중이신 전도사님이셨는데, 300호가 넘는 집성촌에 중·고등학생이 100여 명이나 되었기에 30여 명 출석하는 학생회를 대대적으로 부흥시키고자 열망하며 두 분의 강사님을 초빙해 월요일 저녁부터 합숙 훈련을 시키며, 새벽기도 마치면 온 동네 골목을 청소하고 풀을 뽑고, 오전 말씀공부, 오후에는 전도훈련, 저녁예배 후에는 기도훈련을 시켰지요. '주여' 삼창과 함께 악을 쓰듯 고함을 지르며 부르짖었고, 요즘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열악했던 환경과 가난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목말라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 늦은 밤에 울어대는 아이들의 소리에 동네에 소문이 번져나가고 급기야는 목요일 밤에 우리 아버지는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동네를 대표하여 교회 마당에 나타나셔서, "전도사 당장 나오시오" 하시며 고래고래 호통을 치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 밤 나는 지옥 불 구덩이를 향해 가시는 아버지를 보며 애간장이 끊어지듯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수련회 이후 은혜 충만하여 몇몇 임원들과 의논하기를, 낮에는 소꼴 배기

나 밭매기 등 집안일을 도와야 하니 밤에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1주일 정도 지나간 어느 날 10시가 되어갈 시점에 언니를 보내어 나를 잡아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벌벌 떨며 마당에 들어서니 머리채를 휘어잡으시며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다그치시며 회초리로 머리며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셨지만 아버지의 그 질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교회 나갑니더",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때리는 우리 아버지 손이 변하여 교회 마당에 풀 한 포기라도 뽑고 세상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기도하며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어머니도 오빠도 화난 아버지를 당해 낼 수 없어, 거짓으로나마 교회 안 나가겠다고 대답하기를 종용했지만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확고했지요.

그날 밤 나는 생생한 뽕나무 회초리 3대가 다 부러지도록 맞았고, 애지중지하던 성경 찬송에 라이터 불을 댕겨 거름 더미에 던져져 타는 것을 보며 데굴데굴 구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우는 나를 끌어안고 나중에 아부지 품 떠나 시집가면 그때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며 달래고 설득했지만 나는 순교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던 터라 그다음 주일에 또 교회에 다녀오다가 곧장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 인지라 3일 동안 배를 곯며 교회에 있다가 집 뒤에 있는 대밭으로 숨어들어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른 아침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큰 독에 가득 채워 놓고, 넓은 마당을 쓸고 멀끔하게 골목을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놓는 등 아버지의 환심을 싸

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니 다시 내쫓지는 않으시고 "이제부터 니 아부지는 하나님이니 나 보고는 아부지라 부르지도 말거라" 하시며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예상하셨던지 별말씀이 없으셔서, 집안 동생들을 모조리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다녀서 집안 어른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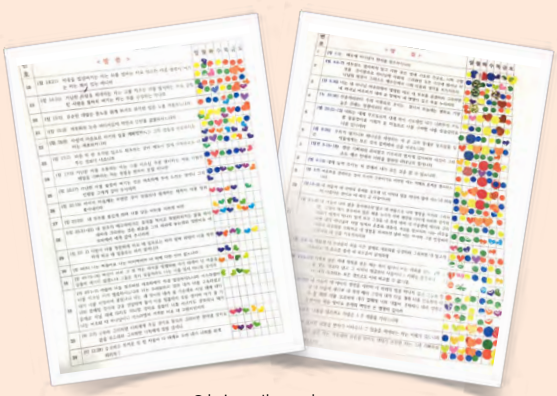
결혼을 앞둔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는 가정에 시집가는 것이었고, 장로님 집사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완고한 우리 집에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성씨와 집안 내력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중매해서 맞선을 보라고 하시기에 거절 거절하다가, 늦은 나이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남편과 맞선을 보고,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어른들은 결혼식 날을 정하였고 두 달이 못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의 장손으로 6남매의 맏며느리인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 문중인 친정에서 제사 드리는 예법을 늘 보아오던 터라 시어머니께 모든 제사 날짜를 여쭈어 달력에 표시하고, 제사 때마다 버스로 포항까지 가서 택시로 첩첩산골까지 제물을 싸들고 아이까지 업고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주어진 도리를 다 하였고, 결혼 첫 달부터 30만원 월급에 5만원씩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은 나를 보시며 10여 년이 지난 후 "그래 니 같이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쟁이 욕하겠노?" 하셨지요. 시부모님께서 소천하신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세례 받으시고 기쁘게 교회 출석하시고 몇 사람 전도도 하셨고,

형제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믿지 않던 시동생 내외 시누이들도 권사, 안수집사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토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궤계를 부렸기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진흙탕에 뒹굴기도 하였고, 긴 긴 나날을 오직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열매로 친정 집안에 여동생이 목사님 사모이고, 일곱 번째 남동생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3명의 선교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 그토록 갈망하던 믿음의 가정 세우기에 성공하였고,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주일마다 교회 마당, 예배실, 또는 봉사 부서에서 출가한 두 아들 부부와 4명의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손주들을 매일 어루만지며 키워줄 수 있어 감사하고, 큰 아들네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녁 먹고 난 후 학교나 공원을 오가며 산책하는 길에, 또는 병원 갈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가르치는 일 등을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손주들과 예쁜 추억을 만들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이고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여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손주 4명(도은, 재은, 초은, 서은)이 출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순모임 카톡방에 올리려 글을 적고 있는데 6살 재은이가 어린이 큐티 책을 내놓으며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랑 큐티하라고 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시편 1편 내용이어서 또박또박 말씀을 읽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이 나서 설명을 했지요. 창가에서 꽃을 피우며 자라고 있는 바이올렛을 번식시키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잎을 잘라 투명 컵에 꽂아두고 재은이가 물을 갈아주고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 오던 터라 그날 서너 개의 화분에 심어 자기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색종이 찢어 붙이기로 풍성한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둘째 아들네 도은(7살)이가 오더니 "할머니 저도 집에서 큐티해요" 할 때 순간 감사와 감격이 목매이게 올라왔습니다. 시어미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쟁이라도 하듯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려 애쓰고, 주중 1회 가정예배 인증샷이 빠짐없이 카톡방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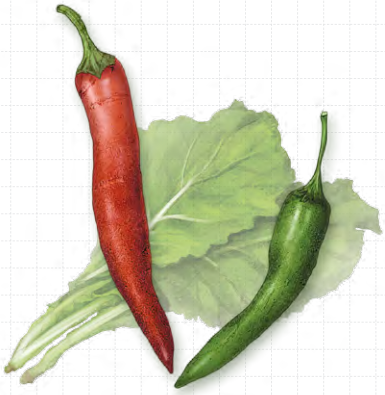
암송 체크카드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50년 전의 기대감에 부풀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꿈으로 가족 구원의 숙제를 안겨주셔서 여기까지 변심하지 않고 오게 하신 나의 하나님은 제 인생의 참 목자이셨으며, 피할 바위였고, 구원의 요새이셨음을 목 놓아 외칠 수 있기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거의 1/3이 되어버린 주일학교 상황을 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끓어오릅니다. 할머니들이여, 딸들이여, 며느리들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쁜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심고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삶의 중심이 됨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손주들이 6살 되던 해 말씀 카드를 만들어 읽고 외울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시상품을 걸어 말씀 암송을 시도했었지요. 이제 두 녀석이 초등학교에 진학해 매일 오지 않아 계속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나의 두 아들, 며느리들아~ 이 땅에서 최고이자 마지막 나의 과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잇기' 임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내 사랑 도은, 재은, 초은, 서은아~ 너희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소리 높여 외쳐다오.

| 불덴동상

겨자씨 믿음과 고추씨 소망



오은섭 성도

겨자씨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므로 겨자씨 믿음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만 고추는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므로 고추씨 소망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것입니다.

2년째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추 모종 몇 포기를 키우는 중에 평소에 성경 묵상한 내용들이 상호 작용하여 고추씨 소망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한두 달 전 겨울 새벽에 북비산 네거리 근처의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신년 메시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22절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에 곧바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수시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혼자 생각에 이 메시지에 어울리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너무 일반성이 부족하므로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시시때때로 생겨났습니다.

그해(2020년)에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뒤집혔던 터라 정신없이 지나갔고 작년에는 청양 고추 모종 6포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던 중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3포기는 바짝 말라죽었고 3포기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급히 물을 주고... 잎을 많이 떼어내고... 간신히 3포기를 살려내었으나 그해 가을까지 청량풋고추 수확은 100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올해 5월 초 다시 고추 모종 6개를 심었습니다. 작년의 아픈 실패가 있었으므로 youtube에서 이것저것 찾아 공부하고 유기질 비료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 본 결과, 올해는 8월 하순까지 200개 정도 수확했으므로 여남은 개씩 몇 집에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생명!! –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경이로움

베란다에서 어설프게 키워도 고추씨 하나가 커서 고추 몇 십 개가 열리는데 고추 한 개마다 그 속에 수십 개의 씨앗을 갖고 있으므로 고추씨 하나가 생명이 있어 성장하고 결실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고추씨 천개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가 저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추씨 하나를 넓은 땅에 심어 제대로 키우면 그해에 고추 몇 백 개를 얻을 수 있고 고추 한 개마다 그 속에 수십 개(또는 백여 개)의 씨앗을 갖고 있으니 그 씨앗들을 이듬해에 모두 다시 심으면 수백만 개의 고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했던 일은 평범한 행동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과정을 거쳐 보잘 것 없는 고추 씨 하나가 불과 2년 만에 몇 억 개의 고추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은 일반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세계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보면 비록 고추씨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새 생명 거듭남의 길이며, 불과 2년 만에 몇 억 명으로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소망이라고 설명하셨으므로, 베란다에서 고추를 키우며 깨달은 이 큰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겨자씨 믿음과 고추씨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덴동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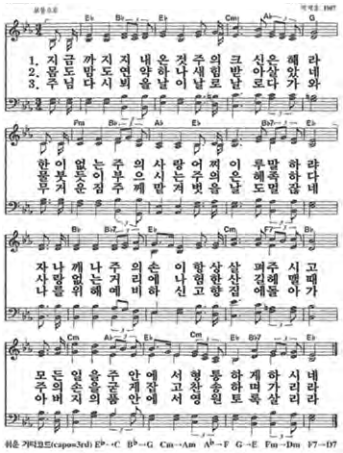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사오 데쓰사부로 작사 · 박재훈 작곡; 〈통일 찬송가, 1983〉 460장

작곡자 **박재훈** 목사



이 찬송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부르며 힘을 얻는 찬송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든 일 닥쳤을 때도, 지나고 나면 그 길을 이겨내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삶도 함께하실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노선희 권사)

이 찬송은 일본 홀리네스교단 최초의 찬송가인 「구원의 노래」에서 이장하 목사가 번역하여, 1919년 성결교에서 발행한 《신증 복음가, 1919》46장에 처음 번역 · 채택되어 별로 수정 없이 오늘까지 애창되고 있다. 일본 동양선교회(OMS) 초창기 지도자 사사오 데쓰사부로 목사가 1897년에 작사한 찬송이다. 가사가 은혜스럽고 거기 사용된 곡조'NETTLETON'(복의 근원 강림하사 곡조)도 우리가 좋아하는 5음계에 3박자라서 애창되었다. 같은 곡조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눈을 들어 산을 보니」등도 불렀는데, 《개편 찬송가, 1967》 편찬 때 「한 곡조에 한 가사만 인정한다」는 원칙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는 폐기하고, 이 찬송은 가사를 살려 채택하자 하고 작곡을 공모하였는데, 박재훈의 곡조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통일 찬송가, 1893》 편집 때 보수교단 측에서 옛 곡조도 살리자 하여 같은 가사에 456 · 457 두 장에 실렸었는데, 이번에 옛 곡은 빼어 버렸다.

이 곡조의 작곡자 박재훈 목사는 그의 회고록적인 책 《내 마음 작은 갈릴리, 2002》(성실문화간, 150쪽 이하)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띄어쓰기는 그 책을 따른다.

1964년 개편찬송가를 만들기 위하여 각 교파에서 파송되어온 찬송가위원회의 위원들간에 한가지 고민이 있었다. 은혜로운 이 찬송가의 시에 대한 확실한 출처를 몰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우리 위원들 간에 모여진 어설픈 결론은, '너무나 혹심한 일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어느 신령한 목회자가 울면서 기도하며 쓴 고백문이 이 찬송가로 노출되어 나온 것일 것이다'라는 정도였다, 그래서 개편찬송가 처음 판(1967)에는 노래의 작사자 이름이 빠져있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매일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모습을 이 땅에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 결코 안 되는 것이다. 1절에 '자

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라는 구절처럼 주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2절은, 아무것도 아닌 한줌의 흙덩이 같은 나일지라도 매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을, 3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큰 소망 중에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집에 들어가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날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을 찬미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찬송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Nettleton이라는 곡조에 실려 몇십 년 불려 왔지만 해방 후 처음으로 나온 「(합동)찬송가」(1949)에는 이 곡조가 각각 다른 기사에 세 곡이나 들어 있어서 「(개편)찬송가」 개편 8개 원칙의 하나인 중복된 곡조는 본래의 처음 가사로 돌리고 남은 가사는 좋으면 다시 작곡하여 넣고 추천할 만하지 못한 것이면 없앤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작곡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Nettleton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의 원래의 가사로만 돌아갔고, 지금 부르는 곡조는 이 시를 살리기 위해 찬송가 위원회에서 행한 곡조 응모에 내놓은 내 것이 당선되어서 이 곡조가 굳혀지게 된 것이다. '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공회'로 발전되고 1983년 「(통일)찬송가」가 나오고 판을 거듭하면서 이 찬송의 작사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이 찬송가의 시인 사사오 데쓰사부로(Sasao Tetusaburo, 1863~1914)는 일본 사람으로서 19세기 말 일본의 초교파 전도대의 일원으로 불같이 뜨거운 전도인이었다고 전하여진다. 그 당시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던 빅스톤 선교사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면서,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전도인 미다니 나네기씨와도 함께 선교활동을 하였다. 미다니(1868~1945)는 동지사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외아들' (416장)을 지은 찬송가 시인이다.

사사오 데쓰사부로 씨는 1897년 빅스톤 선교사와 공동으로 「구원의 노래」라는 노래집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로운 찬송을 지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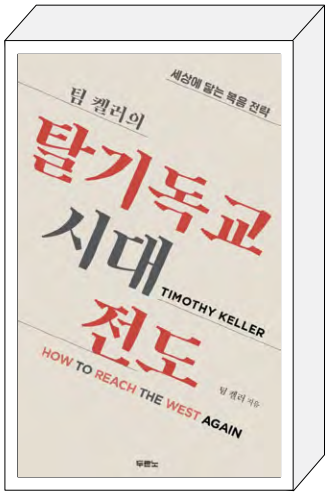
작사자 사사오 데쓰사부로(Sasao Tetusaburo, 1863~1914) 목사는 1869년에 일본 이세에서 태어난 홀리네스교단 목사다. 무역업자로 성공해보려고 1888년에 미국으로 갔다가 어느 목사 부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집회를 구경 갔다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감리교인 가와베 데이끼지(1864~1953)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 전도를 하였다. 1894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마쓰에에서 벅스턴(Buxton, Barclay Fowell, 1860~1946) 영국 성공회 선교협회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후에 가와베 데이끼지가 시작한 일본메소디스트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벅스턴 선교사의 소개로 나까다 쥬지(1870~1939)를 만나 1901년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교수가 되었다. 그 동안에 벅스턴 선교사와 함께 영국과 미국을 돌며 순회전도를 하였다. 벅스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마쓰노 기꾸따로와 함께 일본 홀리네스교단 최초의 찬송가인 「구원의 노래」 (1987)를 편집 발행할 때 많은 찬송을 번역 · 창작하였다. 1913년 성서학원을 사임하고 전적으로 전도사업에만 힘을 기울여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국 순회전도에 힘썼다.

이 찬송은 「1897」와 「福言唱歌, 1901」에 실린 후, 일본 홀리네스교단 최초의 공식찬송가 《리바이벌 성가》(1923) 186장에 실렸고, 현행 찬송가인 《聖歌, 1958》 292장에도 실려 있다. 《聖歌, 1958》을 개편한 《新聖歌, 2001》331장에는 박재훈 목사의 곡이 실렸다. | 불덴등상

〈이상 출처: 오소운 목사.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성서원〉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세속화시대,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적대감을 보이는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팀 켈러 목사는 초대교회에서 발견한 복음 전략을 현대판으로 재현하였다."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저 자 _ 팀 켈러(Timothy Keller)
역 자 _ 장성우
출판사 _ 두란노서원
출판일 _ 2022년 4월 20일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간명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이토록 짧지만 긴급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교회사를 되짚어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시대를 복음으로 분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여기서 소개하는 통찰은 단지 과거를 운운하는 교훈조의 충고가 아니라 오늘의 현장을 꿰뚫는 적시적 조언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바로 그 복음 전략을 나누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는 안내서다.

▣ 들어가며 -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세상 속에서 (발췌)

지난 30년간 들어온 말이 있다.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post-Christian)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기독교는 그 힘을 상실하지 않았다. 여전히 북미 지역에는 전통적인 신앙과 도

덕관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 성장한 주류 교회들은 쇠퇴했어도 복음주의 교회들 대부분은 건재하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두고도, 탈기독교 사회로 완전히 진입했다기보다 여러 지역에 걸쳐 기독교의 영향력이 드문드문 분포된 나라(spotty Christendom)가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국 교회의 3분의 2 이상은 이미 정체기를 맞았거나 쇠퇴하는 중이다.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성과 젠더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기독교가 고수하는 입장은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거나 위협하는 관점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서구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새로운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여 그 문화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그 모델을 보여 주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접점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늘 비슷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중 한 가지를 들자면 '영적 교만'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부흥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고찰하며, 영적 교만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쓸데없이 발생하는 다툼이나 분열 혹은 파벌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혼합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듯이(삿 2:11-15),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그 문화 속에 자리한 우상과 뒤섞어 버릴 때 나타난다.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는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만들어 내는 우상의 유혹은 여전하기에 이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매력을 약속하는 우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시대마다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각 시대가 당면하는 독특한 어려움도 있다.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자면, 이전 시대에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바로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단지 (중국이나 인도 또는 중동에서 볼 수 있는) 비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탈기독교 문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 도서 목차

들어가며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세상 속에서

1부 탈기독교시대, 왜 복음 전도가 어려운가

1.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난제들 –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다

2부 복음 전도의 6가지 접점들 – 어떻게 세상에 손을 내밀 것인가

2. 접점 1 _ 기독교 우위의 문화 비판 – 복음으로 현대 문화를 분석하다
3. 접점 2 _ 복음 전도의 역동성 – 역동적인 초대 교회의 전도를 배우다
4. 접점 3 _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사회적 자세 – 초대 교회가 보여 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따르다
5. 접점 4 _ 디지털 세대를 위한 대항적 교리 문답 – 세속적 내러티브에 대항할 교리 문답이 필요하다
6. 접점 5 _ 공적 영역에 남아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 –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일의 통합을 이루다
7. 접점 6 _ 다시 발견하는 복음의 은혜 –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다

3부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다

8. 기독교인의 사기를 북돋우는 소식 – 부흥의 약속에는 마감 기한이 없다

나가며 –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 책 속의 픽(pick)

▶ 현재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게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과 진리, 죄와 사후 세계에 관한 최소한의 성경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믿음을 갖춘 경우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문화가 양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이해가 결여되어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또한 그처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문화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참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일반 사회와 동떨어진 우리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 또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여 기독교인의 신앙과 규범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교회가 주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적실성만 갖추는 일도 아니다.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전략과 달리) 주변 문화와 연결점을 만들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전략과 달리) 그 문화 속에 자리한 문제를 드러내며,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전략과 달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가가는 일이다

▶ 곧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하며(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리드하되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저자소개

팀 켈러 목사는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설립하였다.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팀 켈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다. 그는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2017년부터는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도시 전도와 사역을 돕는 단체인 CTC(City to City)를 섬기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버크넬대학교(Bucknell University),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센터처치》,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팀 켈러의 기도》,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등의 저서가 있다. 생명의말씀사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외부 기고문 _주제 : 가족

[3]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김병년 목사
(다드림교회 담임)

연재순서

1회 :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생활
2회 : 아프지 않은 가정은 없다
3회 :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4회 : 먹고 놀고 쉬는 곳

*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자 _ **김병년**

시골 깡촌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한여름에 농활 온 대학생들의 풍금소리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다. 청구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대구 명덕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을 배웠다. 한국외국어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대학생 시절 IVF(한국기독학생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15년간 IVF 간사로 섬겼다. 서른한 살에 결혼해 알콩달콩 살던 중 셋째를 낳고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후 지금까지 17년간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와 목회를 병행하며 남다른 제자훈련을 받는 중이다. 아내를 지키는 간병인, 세 아이의 엄빠(엄마+아빠), 작은 교회의 목사, '공 잘 차는' 아저씨.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대학졸업생 큰딸, 대학재학 중인 아들, 엄마 목소리 한 번 못듣고 자라 어느덧 고2가 된 막내딸과 더불어 고통 중에도 즐겁게, 아픔 가운데서도 유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일평생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바라는 꿈을 품고, 서울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교회를 2005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이상 비아토르),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이상 IVP), 『묵상과 일상』(성서유니온선교회)이 있다.

결혼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무슨 일이든 늘 중심 잡기가 중요합니다. 23.5도나 기울었음에도 중심축이 문제없으면 지구본은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헝클어지고 흔들리는 위기와 어둠이 닥쳐와도 삶의 중심축이 견고하면 머잖아 다시 질서가 찾아오고 빛이 비쳐듭니다.

삶에는 숨 막히는 질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황홀한 감격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우리 삶에서 가장 황홀한 감격의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 맺는 언약 안에 중심축이 숨겨져 있음을 어슴푸레 깨닫습니다. 그 중심축이 견고해질수록 결혼의 아름다움은 더 빛을 발하고, 우리는 풍성한 결혼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황홀감에 사로잡힌 결혼 초기에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한 소망스러운 비전을 자칫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이란 장밋빛 낭만이 아닌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혼식에서 맺은 언약은 서툰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기는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게 하며, 결혼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서로에게 헌신하게 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결혼이 언약을 따르기 위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되는 실망과 좌절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잦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집을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련회나 출장, 각종 외부 사역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해인가는 출장으로 28주 동안 집을 떠나 있기도 했었지요. 아내가 쓰러지고 홀로 세 자녀를 돌보던 어느 날 밤 텅빈 마음속에 헛헛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신혼 때부터 사역으로 나간 남편 없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아내가 겪었을 외로움이 새삼 짙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홀로 감당하며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생활은 초기부터 그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살림과 육아에 지쳐갔습니다. 남편으로서 저는 첫 번째로 헌신해야 할 영역이 아내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언약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언약은 결혼생활에만 결부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속하는 것도 언약을 따르는 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신 말씀이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언약으로 한 몸 되는 부부 관계에서 언약이 중요한 것은 결혼의 목적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교회가 그를 사랑한 것을 가장 신비롭게,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내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언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움이 없는 친밀함을 누리게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에 대해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상대방의 불완전함조차 서로 수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실제 생활에서 '책임'을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응급 상황에서 항상 서로 보호자가 됩니다. 결혼의 언약이 없는 동거는 응급 상황에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보호자를 찾듯이 결혼생활에서는 배우자 서로가 보호자가 되는 책임을 짊어지게 합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책임을 지우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혼의 언약이 집 안에서는 말이 적고 대화에 서툰 저를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도록 일깨웠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지배하려는 것들

결혼생활에서 돈만큼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침노해오는 것이 있을까요. 아내의 두 차례 큰 수술 외에도 계속되는 전세금 인상, 세 자녀의 교육비 등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달이 찾아오는 간병비는 지속적인 두통이 되어왔습니다. 늘 돈 걱정에 파묻혀 살아야 했고, 어느새 돈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 씨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를 내뱉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 아이를 따라다니며 삶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질병은 삶의 질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대부분의 관계를 해칩니다.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심지어 양가 가족과의 관계까지 깨뜨리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이나 장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일정이 돌아가고 정작 보호자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일정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나 치료비 등 돈의 압박까지 끼어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치 연애하듯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투병 이후로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잠을 지나치게 줄여서 일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렸습니다. 그럴수록 몸에 문제(혈당)가 생기기 시작했고, 때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일이 늘었고, 그럴 때마다 마치 아내로 인하여 지각한 것처럼 거짓말도 늘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평안이 깨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와도 언약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비록 과정이 힘들기는 하나 다시금 결혼생활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그 자리를 꿰차고 지배하려던 것들을 하나씩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아 절약하며,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너무 옥죄지 말고 자유를 허용함으로 섬기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잘 유지해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꿈도 필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자신의 계획에, 무엇보다 돈에 먹히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는 위기

아내의 발병 초기에 장모님이 아픈 딸을 돌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쓰러져 누운 뒤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은 너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돕는 거야."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장모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과 교회 개척, 그리고 목회에 큰 유익을 끼치신 분입니다. 집 가까이로 이사 오신 뒤 저는 한동안 장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장모님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누운 아내와 그로 인해 불안정해진 일상, 계속되는 일상의 긴장 속에서 장모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귀가할 때마다 장모님의 감정과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는 일에도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갔지요. 더욱이 날마다 거의 10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간병까지 맡아 하시는 장모님의 헌신 앞에서 가정 안에서 제 자리, 제 역할이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귀가하여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아이들도 외할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눈치를 보는데 아이들인들 별다를 수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도 말수가 줄었고 인사만 나누고는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외도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속 깊은 감정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지만, 겨우겨우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단순 간결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네?"

"장모님을 돌려보내시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직접 돌보시면 됩니다."

충격으로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역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장모님을 돌려보내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거듭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의 중심은 부부로 정하셨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모님은 댁으로 돌려보내시고요."

옳고도 지당한 그 얘기를 곱씹으면서 계속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장모님이 하시던 저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책임은 늘 버겁고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다시,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

장모님을 돌려보내고 난 뒤, 서툴게나마 살림을 맡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수업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방치하기도 했고, 아직 젖먹이인 막내는 동생네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젖동냥을 하지 않았을 뿐, 심청이 아버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상의 온갖 잡다한 집안일들이 제 몫이 되고 나니 늘 잠이 모자랐습니다. 개척 교회를 목회하면서 밥이며 빨래, 청소 등 매일 밀려드는 집안일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가며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었으나 현실은 하루하루 떨어지는 숙제하듯 온갖 일상을 해치워야 했습니다. 살림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나름의 기준도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때로 집안일로 인해 감정이 무너져내리기도 했습니다.

외부 활동도 대폭 줄였습니다. 바깥 일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나만 할 수 있는 양 호들갑 떨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 희생과 섬김의 역할에 집중하는 동안 명예와 인정을 구하던 헛된 갈망이 제게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면 먼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긴장과 피로,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가던 삶이 양털처럼 조금씩 부들부들해졌습니다.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웃음이 늘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습관을 고치고 직접 부닥치고 감당함으로써 몸은 고단해도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꼼짝 못 하는 아내여도 변함없이 가정사를 나누고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중심축은 다시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던 제 삶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다시 중심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글을 읽는 성도님 가정의 중심은 누구(무엇)인가요? 불덴등산

교회는 '환대' 공동체인가

이주하 협동장로
(물댄동산 편집위원)

> 결국,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게 집중하여 손님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집중 능력과 우리 인생의 조건부 집중 능력 간의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죽기까지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은 1907년과 같은 영적 각성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에스더 구국기도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한다.

환대의 교육체제 구성을 제안하면서 새삼 성경 말씀에 아로새겨진 '환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환대'의 영성 계발이 위기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치유책임을 깨닫게 된다.

1. '환대'와 주인의 집중 능력

'환대(hospitality)'가 풍기는 인상은 부드럽고 포근한 친절, 부담 없는 교제의 자리, 온화한 대화, 편안한 분위기이다. 그동안 우리 문화권에서는 '환대'를 기독교 전통에 치우친 종교적 용어로 생각하여 과거의 빛바랜 용어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환대(歡待)'란 용어는 헨리 나우웬과 데리다에 의해 회복할 만한 가치 있는 인간관계 언어로의 복권이 시도된다. 헨리 나우웬은 '환대'를 누가 누구를 대할 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

서 바라본다(Henri Nouwen, 1972. 1975). 데리다는 누구도 예외 됨이 없이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절대적 인간관계로서의 무조건적 환대의 필요성을 말한다(Jacques Derrida, 2004).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과 치유가 넘쳐난다.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함과 부드러움, 친절이 있어 우리를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게 하는가?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는 환대에서는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능력이 관건이다. 환대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대하면서 가지는 두 가지, 즉 집중(concentration)과 공동체(community)형성이 주목된다(Henri Nouwen, 1972 : 120).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누가복음에서는 15장 전체를 통해 환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집중 능력과 공동체 형성으로 나가는 모습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먼저 양 하나를 잃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하나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에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험산준령을 헤매는 목자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집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누가복음, 15 : 3-4).

그다음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하나를 잃어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 여자의 모습에서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 집중하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누가복음, 15 : 8). 이 비유는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했지만 생각할수록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등불까지 켜고 또 비질해 가며 찾는 모습에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집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급기야 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집중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자 성전 휘장까지 찢으셨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여 타국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이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환대와 집중 능력에 먹먹해진다(누가복음, 15 : 11-19). 렘브란트의 영성이 어떠하기에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집중 능력을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2. '환대'의 교회공동체로 나아가기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중 능력은 곧바로 기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간다.

양을 찾은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며 잔치를 베풀고(누가복음, 15 : 5-7),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만든다(누가복음, 15 : 9-10).

탕자를 환대한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를 마련한다(누가복음, 15 : 20-32).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잔치 자리에 그 집 맏아들은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집을 지켜왔다는 둥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편안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집중 능력과 맏아들의 집중 능력은 절대자 대 조건부 인생의 관계처럼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게 집중하여 손님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집중 능력과 우리 인생의 조건부 집중 능력 간의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죽기까지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이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킨 터줏대감 같은 영성으로는 타인들을 환대할 수 없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분리하는 맏아들의 영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환대의 영성으로 회복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환대를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조건부 환대를 끊임없이 반추하는 준거로 삼아,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도 영성 계발에 숫자나 효율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낯선 사람에 대한 집중 능력은 미숙하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등록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예배가 끝난 후 다가가서 교회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좋은 환대의 방법이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그때,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가정을 '밥조'로 초대하여 매주 함께 시간을 가졌던 환대의 순간들, 지금도 가끔 이야기한다. 제일 좋은 환대의 공동체 형성은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건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것이다. 울렌동산

참고문헌.

누가복음 15장

데리다, 자크(2004),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역, 동문선.

Nouwen, Henri J. M.(1972), *The Wounded Healer,*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Inc, 최원준(역)(1999), **상처 입은 치유자**, 서울 : 두란노.

..... (1975), *Reaching Out :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이상미(역)(2007), **영적 발돋움**, 서울 : 두란노.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 [2]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박창운 목사님은 풀러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영화 읽기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셨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제대로 보고 평가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쓴 그 내용을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아울러 좋은 영화, 생각할 영화도 함께 글 속에 녹여 낼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소개하려는 것은 이 영화가 간직한 미덕 때문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진모영 감독의 2014년 작품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살아가는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일 년의 과정을 통해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듯 이는 고조선 시가로 알려진 〈공무도하가〉를 차용하였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떠남을 말하는 것이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님이 저 강을 건너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떠날 것을 인지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현실성, 환상성

이 영화의 미덕은 먼저 영화가 보여주는 사랑의 현실성이다. 영화가 개봉되고 관객 480만 명을 넘어간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이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주 관객층이 20대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학벌, 경쟁, 취직, 성공 지향적 세상 속에서 이토록 이타적인 사랑이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었다. 이러한 놀라움은 현실 세계에 부재한 무엇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환상성(Fantasy)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잃어버린 사랑을 노부부의 일상적 사랑으로 나타낸 사랑의 환상성이었다. 노부부는 가을엔 낙엽을 쓸고 장난치며, 겨울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에 시린 서로의 손을 불어주고, 봄이면 꽃을 꺾어 서로를 단장해주고, 고운 한복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랑

노인대학 야유회를 다녀온 이후로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진다. 반려견 꼬마의 죽음이 하나의 전조처럼 할아버지의 노환도 더욱 악화되자, 강계열 할머니는 먼저 죽어간 아이들의 내복을 구입하고, 할아버지의 옷을 미리 태워 곧 떠나갈 할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한다. 노환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눈 덮인 무덤가에서 나머지 옷을 태우며 자신이 갈 때까지 잘 지내라고 울며 인사한다. 그래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이렇듯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노부부의 사랑과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사랑의 현실성과 함께 담고 있다.

물론 죽음을 준비한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대학 가을 소풍 때 부부가 나눈 대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한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죽어도 한이 없지. 근데 싫어요.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죽기가 싫어.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남은 삶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향한 최선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바로 최선을 경주하는 삶이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장면 외에도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는 순간까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눈에 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갈 때, 할아버지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든 몸이지만 할머니를 따라 나간다. 힘들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도 할아버지는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따라간 병원 의자에 앉아 아픈 할머니의 무릎을 연신 쓰다듬어 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죽음이 온전히 오기까지 여전히 사랑하며 함께 하는 삶을 말해준다.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는 죽음의 준비는 수동적이지 않다. 남아있는 날들을 치열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죽음이 다가올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노라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화가 말하는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는 삶이다.

일상의 소중함으로서의 가족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드러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환상성을 일으키는 현실의 사랑과 죽음을 준비하고 이해하는 삶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긍정하는 삶 또한 드러낸다. 관객들은 큰 아들과 큰 딸이 어머니의 생일상 앞에서, 그것도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부모 섬김의 문제로 다툴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지 노부부의 로맨스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 했다면 가족 다툼의 씬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도리어 영화는 이 대목을 통해서 관객들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화는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녀들이 찾아와 더 잘 해 드리지 못함을 눈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함으로 노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평을 넓혀 가족이 무엇이며 또한 관객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지, 무엇을 영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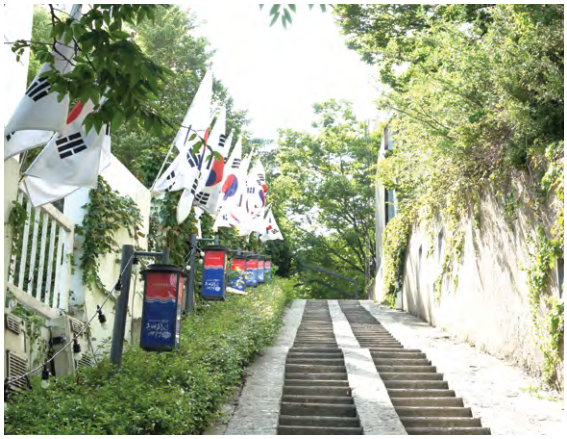
부기(附記)

노부부의 아껴주고 사랑하는 삶이 주조를 이루는 영화 속에, 조병만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는 심상치 않은 장면이 영화 속에 한 번 나타난다. 이는 거울을 걸 때 일어난 일로, 다름 아닌 자신의 힘으로 거울을 걸 수 없음을 감지한 늙음에 대한 역정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이유를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한 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사랑의 현실성이 환상성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도 생각해보라. | 물댄동산

[수필]

청라언덕 위에서

임혜순 은퇴권사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대구근대골목 투어와 연결되어 있다. 국채보상 운동가 서상돈 고택과 이상화 시인의 고택을 지나면 서쪽 건너편에 삼일독립만세 길 90계단이 보인다. 좁은 계단을 한참 헐떡이며 오르면 오른쪽은 우리 교회(대구제일교회)와 스윗츠 주택, 왼쪽은 옛 선교사의 사택인 쳄니스와 블레어드 주택이 나란히 서 있다. 지금은 모두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백 년이 넘은 정원수들이 무슨 예술품처럼 지주에 의지하여 구부정하니 서 있고 얽히고설킨 녹음방초의 넓디넓은 정원은 담으로 경계를 지우지 않아 바로 우리 교회의 정원같이 보인다. 그 무더운 대구의 한낮도 이 정원에 들어서면 그늘이 깊어 너무나 시원하다.

여기가 바로 청라언덕이다. 청라(靑蘿)란 푸를 靑, 담쟁이덩굴 蘿란 뜻으로 당시 선교사들의 붉은 벽돌 사택들이 담쟁이덩굴로 휘감겨 있어 '동무생각(思友)'의 배경이 된 듯하다. 지금은 건물이 상한다고 시에서 모두 걷어 버렸다. 그래도 축대 밑 흙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구석에서 곧장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덩굴을 보면 그 성장력의 강인함을 알 수 있다. 오가는 관광객들은 박태준 선생의 돌비에 새겨진 '동무생각'을 한바탕씩 부르고는 지나간다.

♬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나리 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

박태준 선생(1900~1986년)은 대구제일교회 박순조 장로님의 차남으로 계성중학교 제5회 졸업생이다. 그 당시 형님인 박태원 찬양대 지휘자 밑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다. '동무생각'에 얽힌 이야기로는, 같은 교회의 신명학교 여학생을 바라보기만 하고 제대로 말도 못 한 애잔한 이야기가 있다. 서문시장 쪽에서 청라언덕 길을 넘어 약전골목 대구제일예배당으로 오는 여학생을 보려고 가끔 오르간 연습을 하다가 청라언덕에 올라가서 서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컷 연습한 말을 때맞춰 건네지도 못했으며 다소곳이 미소 지으며 지나쳐 버린 짝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백합화처럼 고운 자태에 청순한 미인이었다. 그 후 박태준 선생은 평양숭실학교로, 여학생은 일본 유학으로 헤어졌으나 귀국 후 안타깝게도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박태준 선생과 이

은상 시인이 만난 곳은 마산 창신학교 근무 때이다. 학교 뒷동산에서 옛날을 추억하던 박 선생의 애틋한 이야기를 듣고 이은상 시인은 '동무생각(思友)'이란 시를 써 주었다. 여기에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 된 것이다.

박태준 선생은 작곡가로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서양음악 공부를 했으며 1925년 모교인 대구 계성중학교 음악교사로 합창과 악대부를 지도했고 '물새 발자국', '오빠 생각' 등 동요를 작곡했으며 교회에서는 찬양대원, 반주자, 지휘자로 활동했다(대구제일교회 90년사, 110년사 참고). 그 박태준 선생의 자취가 이 청라언덕 돌비에 새겨져 있어 근대골목 투어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또한 박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현제명(1903 ~ 1960년) 선생의 자취도 교회 뜰에 서있는 200년이 훨씬 넘는 이팝나무를 대구시에서 현제명 나무라고 명명하여 관리하고 있다. 4,5월경이면 새하얀 이팝 꽃이 뭉글뭉글 피어 바라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현 선생은 '기러기', '새 나라의 어린이' 등 동요를 작곡했으며, 그는 본 교회의 현승환 장로의 동생이기도 하고 현상욱 장로(이처선 권사 남편)의 사촌 형이기도 하다(대구제일교회 90년사, 110년사 참고).

두 음악가들은 미국 유학 후 한 사람은 연세대 음대 학장으로, 또 한 사람은 서울대 음대 학장으로 현대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찬송가 작곡도 많이 하셨다.

근대 골목길을 따라 동쪽으로 옛 성전까지 내려가다 보면 영남대로라는 좁은 골목길이 나타난다. 그 옛날 1800년 대 부산 동래에서 출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893년에 베어드 목사에 의해 대구에서 최초로 본 교회가 세워질 무렵 그 좁은 골목길에 민달이(나뭇잎이 없고 가지만 있는 땔감)를 지고 가던 마을 분이 선교사와 마주쳐 피하는 선교사의 얼굴을 굵었다고 했다. 흰 얼굴에 붉은 줄이 그어지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게꾼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분은 얼결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다. 이 일화를 이상근 목사님이 들려주셨다. 민달이 나뭇짐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다.

대구제일교회, 신명학교, 동산의료원, 선교사 주택지, 선교사 묘역 등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대구 최초의 선교지라고 볼 수 있다. 대구제일교회는 약전골목에 있던 옛 성전을 〈대구제일교회 대구기독교역사관(시문화제)〉으로 두고 1994년에 현재 청라언덕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3,800여 평의 대지(옛 영남신학교 자리) 위에 고딕식 건물로 참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이다. 꼭 이태리의 두오모 성당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이다. 청라언덕 위에서 두루 조망하고 있노라면 처음 교회를 세울 때의 선교사들의 노고가 뇌리를 스친다. 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최빈국인 조선 땅에서 얼마나 앞이 망막했을까? 베어드 목사 부인이 작사한 찬송가 387장을 잔잔히 허밍(humming)해 보았다. | 골덴동산

♬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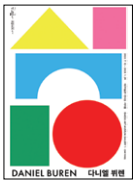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 소개

오페라 LA BOHÈME [라 보엠]

개최일시 2022. 09. 30.(금) 19:30 / 2022. 10. 01(토) 15:00, 19:30
개최장소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공연문의** 053-810-3403 (성악과 조교실)
주최 / 주관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 본교회 테너 이경민 성도 출연

[전시] 제이비 한 : 그림 속 여행

전시기간 2022. 08. 13.(토) ~ 10. 05.(수) **전시시간** 매일 11:00 ~ 20:00 (19:30 입장마감)
전시장소 라이크디즈 위드 김광석거리점
관람료 관람권 5,000원 (전시관람 + 엽서1장) / 통합권 7,000원 (전시관람 + 엽서1장 + 제휴 카페 이용권)
이용문의 053-201-1404



[전시] 다니엘 뷰렌 처럼

참여기간 2022. 09. 06.(화) ~ 12. 25.(일) **참여시간** 1일 7회차 운영 **참여장소** 대구미술관 1층 로비
대상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 **입장료** 성인 1,000원 / 청소년 700원
참여방법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사전예약 후 참여가능
문의 053-803-7883 *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1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심청〉

공연기간 2022. 11. 18. (금) ~ 2022. 11. 19. (토) **공연시간** 금 19:30, 토 15:00
공연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이용문의** 010-2704-6011(문자문의)
* 본교회 소프라노 강수연 성도 심청어머니와 하늘의 소리 1인 2역할.

대구시동부여성문화회관 대구여성오케스트라 & 사)센트로필하모닉 제41회 정기연주

개최일자 2022. 11. 15.(화)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그랜드홀 **입장** 전석초대 (초대권 선착순 배부)
공연문의 053-605-3042 담당 이재성 주임
* 본교회 이경옥B 권사 단장.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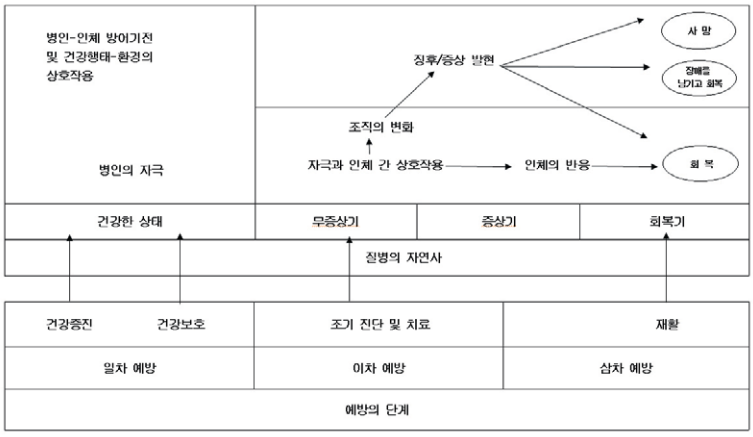
개최일자 2022. 11. 27.(일) **공연시간** 17:00 **개최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연주** 사)센트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 좌석 티켓 **공연문의** 010-3818-4081 (50 ~ 60% DC) * 본교회 이경옥B 권사 단장.

건강과 질병, 그리고 건강검진

우극현 은퇴장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명예교수)

질병 발생단계와 예방대책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회복 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각종 병인(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 몸이 방어기전을 이용하여 방어를 하는 상호작용이 체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병인-인체의 방어기전-건강행태-환경요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방어기전이 병인의 자극을 이겨내면 건강이 유지되고 그렇지 못하면 병이 생기게 된다. 발병 초기에는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기를 거치게 된다.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증상기에 접어들어 환자가 된다. 환자는 증상기를 지나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거나, 장애를 남기고 회복되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에서 회복에 이르는 질병의 자연사의 각 단계별 예방대책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질병 발생단계별 예방대책(H. Leavell 의 질병의 자연사 단계별 예방단계의 변형)

일차예방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과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좋은 생활습관, 예방접종, 개인위생관리,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하수처리, 환경위생관리, 영양소 보충 등이 그 예다. 일반적으로 70-80%는

일차예방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차예방은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불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 또는 효과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거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막거나, 장애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선별검사, 환자발견, 건강검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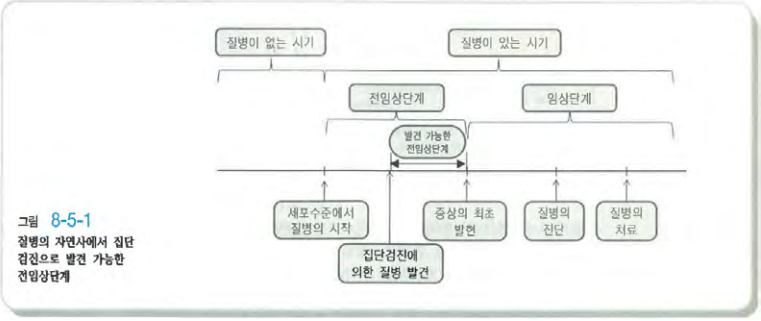
삼차예방은 증상기 또는 회복기 환자의 기능장애 또는 사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질병의 고통을 완화하며 환자를 적응시키고, 기능장애를 복구하거나 남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훈련하거나(재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능한 한 직장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 등이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삼차예방에 속한다.

건강진단과 집단검진

건강진단은 위에서 언급한 이차예방의 원리를 근거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합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혈액검사, PET-CT를 포함한 영상의학적 검사, 내시경검사 등 여러 가지 첨단 진단기법을 이용하여 암, 심혈관질환, HIV 감염 등 만성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이들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건강진단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질병을 알아내는 것을 집단검진이라 한다. 집단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질병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여 생명의 연장과 질병 치유에 기여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질병 발생에 대한 지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보건교육의 의미가 매우 크고 질병의 자연사와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질병의 역학적인 연구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병의 자연사를 보면, 세포 수준에서 질병이 시작되기 전후를 기점으로 질병이 없는 시기와 질병이 있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질병이 있는 시기는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임상 단계와 임상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임상 단계 동안에 집단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같은 전임상 단계가 긴 질환의 경우가 집단검진이 효과적이다.



〈그림 2〉 질병의 자연사에서 집단검진으로 발견가능한 전임상단계

집단검진의 장점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가 좋으며, 의료비 감소와 아울러 피검사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위 음성군의 경우에 진단의 시기를 놓쳐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위 양성군에 대한 불필요한 진단 과정을 거치게도 하며, 경계군 이상자에 대해 과다한 치료를 하게 하는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과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의 목적과 원리 및 장단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뿐 아니라 일차예방의 원리인 건강관리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미국의 Breslow & Belloc 이 196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주 Alameda 지방의 6,92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 반 동안 추적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7가지의 건강수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루에 7-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2.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
3. 간식을 하지 않는다.
4.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 남 : 비만도 5 % 부족에서 19.9% 이내
   - 여 : 5% 부족에서 9.9% 이내
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주 3회 이상)
6. 술은 적당히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다.
7.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별첨 1〉 〈건강관리 수칙〉 = Alameda 건강수칙

위에서 제시한 건강수칙을 3개 이내로 지킨 45세 된 남자의 기대여명이 22년인데 비해 6개 이상의 건강수칙을 지킨 경우의 기대여명이 33년으로 11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1900년에서 1970년까지 의학 기술과 약물 개발 등으로 45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4년 증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일차예방에 근거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준다. 블렌동상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원진 청년
(홍보출판부)

지난 2번의 물댄동산에서 MZ 세대의 언어 소개를 두 차례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단어를 더 추가해,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MZ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도 익히고, 반대로 MZ 세대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익혀 세대 간 어우러짐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모두 유의하세요!)

갓 생

뜻 _ God(신) + 생활의 합성어로, 딴짓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
유의어 _ 열심히 사는 인생, 허투루 쓰지 않는 인생 등

별다줄

뜻 _ '별걸 다 줄인다'의 줄임말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됨.
유의어 _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쓴다 등

삼귀다

뜻 _ '사귀다'의 변형어로, 사귀기 전 단계인 흔히 썸탄다고 하는 관계를 정의하는 말.
유의어 _ 썸타는 관계, 아직은 안 사귄다 등

만반잘부

뜻 _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말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사용함.
유의어 _ 토포악발, 안녕하세요 등

소확행

뜻 _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을 뜻함.
유의어 _ 知足可樂(지족가락), 花樣年華(화양연화) 등

스라밸

뜻 _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로 공부와 오락의 균형을 잡는다는 뜻으로 사용됨.
유의어 _ 워라밸

주 불

뜻 _ '주소 불러!'의 줄임말로,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을 배송할 때 쓰임.
유의어 _ 주소 알려줘 등

조삼모사

뜻 _ 사자성어가 아닌, '조금 모르면 삼번, 정말 모르겠으면 사번'이라는 뜻.
유의어 _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쓰는 신조어.

좋댓구알

뜻 _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의 줄임말로, MZ 세대들의 주요 SNS인 유튜브에서 사용됨.
유의어 _ 이웃등록, 친구추가 등

웃안웃

뜻 _ '웃긴데 안 웃긴다'의 줄임말로, 웃긴 상황이지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의미.
유의어 _ 웃을 상황이 아니다

신조어 Quiz! 괄호 안에 들어갈 신조어를 맞추시오.

1번 문제
A : 이번 시험 공부 완전 못했어. 어떡하지?
B : (　　)라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찍어봐!
A : 찍기라도 해야겠다 ㅋㅋㅋ!!

2번 문제
A : 나 요즘 이 유리컵이 갖고 싶어서 고민 중이야
B : (　　)! 내가 사줄게. 너 곧 생일이잖아.
A : 정말? 너무 고마워! 잘 쓸게.

3번 문제
A : 요즘 어떻게 지내?
B :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조금 바쁘게 지내.
A : 너 요즘 완전 (　　) 사는구나!

4번 문제
A : 요즘 교회 오는 게 즐거워졌어.
B : 설교 들으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게 재밌고, 성경공부 소모임도 즐거워.
A : 요즘 너의 (　　)이구나.
B : 맞아. 이런 게 주님이 주신 행복인 것 같아.

5번 문제
A : 청년부에 새 지체가 왔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B : 요즘 유행하는 말들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 어때?
A : 음... (　　) 이렇게 인사를 건네볼까?
B : 좋아! 친근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 불렌동산

[답안] (1) 조삼모사 (2) 주불 (3) 갓생 (4) 소확행 (5) 만만찮무

온나!

한마음운동회

뭉쳐야 BLESS

| 경기 종목 |

애드벌룬 경기, 파도타기, 통천 릴레이, 바람잡는 특공대
에어봉 릴레이, 장막 줄다리기, 6인 7각 / 2인 3각, 캥거루 릴레이
낙하산 릴레이, 훌라우프, 서바이벌 깃발 잡기, 신발 양궁경기
파이프 릴레이, 지압판 줄넘기, 링 던지기, 단체 계주

※ 족구예선전 : 2022년 9월 18일 ~ 10월 9일

2022년 10월 16일 (주일) 신명고등학교 운동장
오전 9시 30분 예배, 본당 ~ 오후 5시
주최/주관 : 대구제일교회 친교봉사부
문의 : 총무 이상녕 집사 010-3232-6157

제5회 제일가족 한마음 운동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1부 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2부 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구 역 장 회		(화)오전 10: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초 등 4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6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장 년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2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 족 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0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칭찬 한마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익명으로 싣습니다.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2년 11월 26일(토) 까지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이전 다음메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고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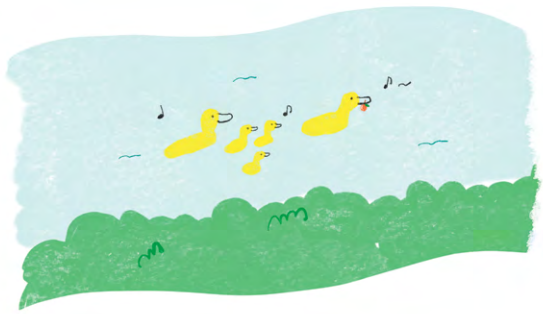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Since 1893. 4. 22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2532615@hanmail.net www.firstch.org